

지석영과 개화기 어문정리

송철의

I. 서론

지석영(池錫永, 1855~1935), 그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종두법의 창시자요, 한국 서양의학 건설의 제일인자였으며(三木榮 1935), 또한 개화기 어문연구 및 어문정리에 크게 기여한 선각자이기도 하였다.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불굴의 의지로 종두법을 배워서 보급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였으며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의원을 길러내고 위생에 대한 계몽을 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혼란된 국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리 하지 아니하여 국어국문을 정리하고 국문을 널리 보급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본고에서는 '便民利國'의 정신으로 국문을 연구하고 국문을 정리하려 했던 지석영의 어문 관련 업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석영의 국어국문 연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업적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그의 어문관과 표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물론 지석영의 업적들을 재음미해 보는 기회도 가질 것이다.

II. 지석영의 생애

지석영은 1855년 서울에서 池翼龍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지익룡은 한학과 한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석영의 家系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의 생애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지석영의 어린 시절 수학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대로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서당에는 다니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서당을 다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약관 무렵에 아버지의 친구였던 박영선의 문하에 들어가 한학을 배우면서¹⁾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집으로 찾아오는 강위(姜瑋)에게서 형 지운영, 유길준, 여규형, 정만조 등과 함께 강론을 들었다고 한다(유동준 1997:37).

박영선 역시 한학과 한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876년 수신사 김기수의 수행 의관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던 것을 보면 박영선은 한의사이기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영선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아버지와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석영은 의술에 취미를 얻어 의술을 배워보기로 하고 스승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게 된다.

나히 스물두살에 의술에 취미를 어더가지고 의술을 배우라고 뜻을 세운후 그책 자기를 가르치는 한학(漢學)선생 박유선(朴有善)이란²⁾ 이에게 자기의 뜻을 말한바 잇섯드니(中外日報 1929.10.22. 3면, '各方面의 成功苦心談(五), (1) 種痘輸入 池錫永氏')

의학을 공부하던 중에 스승 박영선이 수신사 김기수의 수원(隨員)으로 일본에 갔다오면서 久我克明의 저서인 《종두귀감(種痘龜鑑)》을 구해 와 전해 주자 지석영은 그 책을 읽고 종두법을 배워서 천연두로 아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보고자 결심을 하게 된다.

1) 지석영은 박영선을 '나의 선생' 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강위와 관련하여서는 《大韓國文說》에서 왕년에 강위와 함께 國文이 '轉轉訛誤' 됨을 한탄했다는 언급을 하였다.

2) '박영선(朴永善)' 의 잘못된 뜻함.

내가 종두를 배워서 앓가운 생명을 곧쳐보고자하기는 나의 선생되는 박영선(朴永善)씨가 수신사김기수(修信使金綺秀)씨의수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종두구감(種痘龜鑑)이라는 것을 갖다주기에 이것을 보고 비로소 종두법(種痘法)을 배워보고자 결심하고(조선일보 1928.9.21. 석간 2면 '活人の種痘術을 殺人妖로 嫉視')

그러나 책으로만 종두법을 익히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책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종두를 시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그의 조카딸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지석영은 종두술을 익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³⁾ 자기에게 종두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부산에 있던 일본인 거류지에 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우연히 한국어를 잘하는 한 일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일본인이 바로 강화도 수호조약 때(1876년) 통역을 맡았던 우라세(浦瀬裕)였다. 일본어를 전혀 몰랐던 지석영은 우라세를 통하여 제생의원 원장인 마츠마에(松前讓)를 만나게 되고 마츠마에의 소개로 일본 해군 군의 도즈카(戸塚積齊)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도즈카로부터 종두법을 배우게 되었다⁴⁾. 이때 우라세는 일본영사에게 지석영의 이야기를 하여 지석영의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게 해 주었다. 그리고서 지석영에게

3) 내가종두법(種痘法)을배우게된것은지금으로부터오십이전인지난괴묘년의 일인데그동기(動機)는당시나의질녀(姪女)가역질(疫疾)로죽은새문이었소('朝鮮의 「센나」 松村池錫永先生, 辛未의光明을차지(二十)', 매일신보 1931.1.12. 2면

4)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일본 《報知新聞》 明治 12년(1879) 12월(양력)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었다고 한다. 三木榮 (1935-)에서 그대로 개인용한다. 三木榮은 坂本蕙曄의 《續種痘辨疑》에서 인용했다고 한다. 明治十二年十二月(註, 陽曆) 報知新聞 朝鮮釜山浦發ノ來狀ヲ舉テ曰, 當國モ近邇追追開明ノ曙光ヲ催シ 醫術ノ如キモ漸ク開進ノ端緒ヲ開キ 既ニ去十日(註, 陰曆 十月二十四日) 京城ノ 醫師 池錫永 二十五 歳 ノ人 浦瀬裕ノ紹介ヲ以テ 本浦醫員ニ來リ 今般草梁ニ寄宿シ 日日醫院へ出頭シテ 種痘術積古致度顯出 タルニ 付醫院ヨリ 官廳へ 問合セタルニ 差支コレ 無キ 趣ニ付早速 二十日ヨリ 教授ヲ 始メラレシニ 此者ハ 曾テ 支那譯 ノ洋書ヲ 讀ミ少シク 種痘ノ理ニ 通シタル 故時日ヲ 費サスシテ 其法ヲ了解セリ 此節ハ 最早種痘ノ事ハ 濟タレト 更ニ 醫術上ノ事件數條ノ疑問ヲ認メ 日日出頭シテ答辯ヲ乞ヒ 頗ル 啓發スル 所 アリト云.

《交隣須知》와 《隣語大方》을 새로 간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어 부분을 순수 경성어로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식영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셈이어서 종두법을 배우러 병원에 가는 때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수정을 해 주었다⁵⁾.

두 달 간에 걸쳐 종두술을 익히고 서양의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한 지식영은⁶⁾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충주 치가에 들러 두 살짜리 처남에게 종두를 시술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성공을 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40여 명에게도 시술한다. 다음해(1880년) 음력 1월에 집으로 돌아온 지식영은 한성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우두를 보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두묘(痘苗)를 생산하지 않고서는 종두를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880년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갈 때 김옥균과 대원군의 형 홍인군의 소개로⁷⁾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가서 두묘 제조법을 비롯하여 종두법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배우고 익혀 가지고 오게 된다. 지식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옥균의 독려가 큰 힘이 되었다.⁸⁾ 이때 수신사 일행에는 강위도 포함되어 있었고 김옥균도 포함되어 있었다.

1880년 9월에 귀국한 지식영은 종두장을 차리고 사람들을 계몽하면서 종두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공

5) 지식영이 종두법을 배우려고 부산에 간 일과 우라세(浦瀬裕)를 만난 일, 종두법을 배운 과정, 《交隣須知》와 《隣語大方》을 경성어로 수정한 일 등에 대해서는 이완웅(1928)과 三木榮(1935a, b)가 가장 자세하다. 이완웅은 지식영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6)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때 지식영이 우라세의 호의로 醫業書籍 및 자연과학 서적, 그리고 시사적인 서적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의약서적은 '全體新論, 內科新說, 婦嬰新說, 西醫略論, 內科開微, 西藥略釋, 皮膚新論, 儒門醫學' 등이었고 자연과학 서적은 '博物新論, 格物入門' 등이었으며 시사적인 서적은 '瀛環志略, 普法戰記' 등이었다.

7) 〈朝鮮의 「센너 - 」 松村池錫永先生〉, 《每日新報》 昭和 6년(1931년) 1월 25일자.

8) 上同

사관의 의관으로부터 서양의학을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때 친일 개화파로 몰려 종두장이 방화되고 목숨마저 위협 받는 처지가 되었다. 다행히 잘 피신하여 큰 화는 면하였다.

종두법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1883년 2월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다. 이때부터 몇 년간은 관직생활을 한다.

그러나 1887년 4월에는 전라도 강진현 신지도로 유배를 간다. 거기서 1892년 1월까지 5년 가까이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이 유배 기간이 지석영에게는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니었다 싶다. 1888년 유배지에서 그는 《重麥說》이라는 농서를 저술하였고 1891년에는 위생의학서 혹은 예방의학서라 할 수 있는 《신학신설》을 순국문으로 저술하였다. 서문에 보면 이 책은 여러 서양서적(아마도 한문으로 번역된 것일 것이다)에서 가려 뽑아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편하게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국문으로 썼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책을 국문으로 저술하는 과정에서 국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하였을 것이다. 당시는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한 시대이어서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표기법과 관련한 의문들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준거로 삼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두창의 유행으로 종두법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892년 1월 의업에만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유배에서 풀려난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2년 동안은 '牛痘保嬰堂'을 세우고 우두 접종하는 일에만 종사한다.

1894년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지석영은 다시 관직 생활을 하게 된다. 1896년에는 〈국문론〉을 발표하고 1899년 3월 의학교가 설립되자 교장으로 부임하여 이후 한일합병이 될 때까지 의학교육에 헌신하게 된다.

의학교장으로 있으면서 국문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듯하다. 1901년 《訓蒙字略》을 지었고 1905년에는 〈新訂國文〉을 지어 국가로 하여금 공포하게 하였으며 1907년에는 〈대한국문설〉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국문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고 1908년부터

터는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08년 《兒學編》을 개편하여 간행했고 1909년에는 《言文》과 《字典釋要》를 간행하였다.

1896년 〈국문론〉을 발표한 이후 1909년까지가 지식영이 어문운동 및 어문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지식영은 주시경의 예방을 받아⁹⁾ 주시경과도 교류하면서 국어국문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고 주시경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전 자료를 보여주기도 한다.¹⁰⁾ 지식영과 주시경은 20여 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어국문에 관한 한 훌륭한 토론 상대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1910년 한일 합병 이후에는 국어국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업적을 내지는 못하였다. 그렇다고 1910년 이후에 국어국문과 관련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20년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어국문관련 사회활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일보》 1923년 6월 3일자 3면 〈朝鮮文에 대한協議〉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문통신강습회에서 강습록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하여 조선문에 다년간 연구가 풍부한 현재, 지식영, 김필수, 박승빈, 장지영, 이필수, 안확, 이창식 제씨가 모여 난상 토의를 하였다고 한다. 《매일신보》 1926년 11월 6일자 3면 〈全鮮에 文盲消滅코저 實行委員會를 選舉〉 제하의 기사를 보

9) 주시경의 회고에 따르면 지식영과 주시경이 처음 만난 것은 임인년(1902년) 정월이었다. 주시경이 김선신의 천도로 지식영을 찾아감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인 정월 십사일 에 지직 김선신 천도로 송촌 디교장을 찾아보고 이후불어 종” 국문으로 다소 의문이 만났고” (대한국어문법 31b-32a)

10) 지식영은 주시경에게 《훈민정음》(《문헌비고 약고》에 실린 것), 《龍飛御天歌》 등의 책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을스년 여름에 디교장이 문헌비고 樂考에 실린 훈민정음을 찾아 내게 보이니” (대한국어문법 32a)

“隆熙元年 十二月 日에 池松村 錫永氏를 訪尋호즉 同氏가 龍飛御天歌를 求來호여 余에게 示호거늘 余가 此歌를 閱覽호다가 스 次 卍 를 終聲으로 記호 字가 有호을 見호고 大喜호여” (국어문전음학 58)

면 조선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결성하고자 위원을 선거하였는데 그 위원 중에 지석영도 들어 있다. 1928년 종두 실시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석영은 조선의 恩人으로 추앙받으며 전국 각지의 유지 200여 명이 발기한 '조선종두50년기념사업회'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표창식은 지석영이 처음 종두를 배우기 시작한 날인 음력 10월 25일(양력 12월 6일)에 시행되었다.

종두법을 도입하여 많은 아까운 목숨들을 구하고 이 땅에서 곰보를 퇴치했으며 서양의학의 기초를 세우고 국어국문의 연구와 국문의 보급에 헌신했던 지석영은 1935년 2월 향년 81세로 서거하였다.

III. 지석영의 어문관

지석영은 〈新訂國文講議疏〉에서 문명의 근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도구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고 쉽게 행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그 도구란 국문이라고 하면서¹¹⁾ 국문은 실로 나라의 보배로운 문자이며 교육의 도구(校具)중 기본이 되는 것(指南)이라고 하였다.¹²⁾ 국문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여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서 간결하고 쓰임이 무궁무진하며 배우기가 아주 쉬운 것인데도 학문하는 사람들이 (국문을)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에게만 맡겨두어서 混淪, 謾誤가 심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서 교육을 담당한 신하에게 (교육의 도구인) 국문을 정리하게 하고 경전의 일부와 신학문의 중요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민간에 널리 반포하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문자를 교육의 도구라고 본 것으로서 문자의 효용성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석영의 문자관의 일면을 볼

11) 이런 내용은 《고종실록》에 실린 상소문에는 없고 《황성신문》 1905. 7. 28일자 '別報'에 실린 상소문에만 있다. 《고종실록》을 편찬할 때에 이 앞부분은 생략한 듯하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伏以文明之本 實在乎教育而教育之具 莫善乎使民易知而使民易行也 其具維何 國文是已

12) 我東國文(중략) 皇室之寶文 而校具中指南也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지식영은 표기법의 기본정신을 ‘便民利國’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便民利國’이란 민중에게 알기 쉽고 편리한 것(표기법)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것도 지식영의 문자관, 나아가서는 어문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식영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한 표기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걸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평이하고 간결한 표기법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표기법이 쉽고 간결해야만 대중 일반에게 국문을 쉽게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영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국문을 빨리 보급해서 민중을 개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하다.¹³⁾

지식영은 국문의 학적 유래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주시경의 학설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이 반드시 실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주시경의 표기법은 이론적으로는

13) 大正 9年 柴田 學務局長 시절에 조선어 철자법 개정 위원회가 열려 나도 위원으로 선발되어 참석한 적이 있다. (중략) 柴田 씨는 연필을 들어 '개정'의 조건은 무엇에 근거하여야 하는가? 라는 뜻의 말을 써서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便民利國'이라 써서 그에 대답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柴田 씨도 깊이 동의한 모양이었다. 바로 민중들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기도 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學理에 근거하였더라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걸맞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까닭으로 당시 나는 언문의 학적 유래라든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평이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적어도 언문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주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혀 달라진 바 없다. [지식영 1929, 朝鮮思想通信 昭和 4年 7월 8일자 54면, 원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여 실는다. 이 부분의 번역은 스기야마 유타카(杉山 豊) 군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타당할지 모르나 실용상으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된소리를 각자병서가 아니라 스게 합용병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시경의 새받침설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7종성법에 가까운 표기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러한 간편주의 어문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석영은 문자, 또는 표기법 관련 논의에서 “本意에난 습하나 一般人民의 習慣에난 生疎하여 行用하기 極難하리니”¹⁴⁾라거나 “(國民의) 眼目에 過히 生疎하지 안코 行用하기 便易하여야만”¹⁵⁾이라거나 “音理난 비록 固然하드래도 世眼에 生疎함으로 行用하기 容易하지 못하여”¹⁶⁾와 같은 표현을 자주 썼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석영이 표기법이란 일반인에게 너무 생소하지 않아야 하고 行用하기에 용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바탕에 깔려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밖에 그는 문자, 또는 표기법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시경의 새받침설(스ㄷ 등을 종성으로 쓰지는 것)에 대하여

國文字辭典等書를 編製할 時에 音理의 正則이 如此하다고 例言에 說明하여 次次 進行함을 期할 것이요 今에 行用하지만 못할지니 ㄷ ㅌ 等字의 終聲으로 用함은 留案함이 可하다 하나이다(지석영, <국문연구안>, ‘四. 終聲의 ㅅ ㅌ 二字用法及 ㄷ ㅌ ㄱ ㅌ ㅍ ㅎ 六字도 終聲에 通用當否’)

라고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시경이 혁신적인 개혁주의자였다면 지석영은 점진적인 개혁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14) 지석영, 국문연구안, ‘二. 初聲의 ㄱ ㅋ ㆁ ㅌ ㄷ ㅌ ㅍ ㅎ 六字拉書의 書法一定’

15) 지석영, 국문연구안, ‘四. 終聲의 ㅅ ㅌ 二字用法及 ㄷ ㅌ ㄱ ㅌ ㅍ ㅎ 六字도 終聲에 通用當否’

16) 上同

17) 권재선(1988:513-4)에서는 지석영의 표기법 이론은 ‘反切主義’, 주시경의 표기법 이론을 ‘訓民正音主義’라고 하였고, 신유식(1999:93)에서는 지석영이 전통적인 표기법을, 주시경이 새로운 표기법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이상 간단히 논의한 바를 통해서 본다면 지식영은 문자를 교육의 도구로 보는 어문관, 쉽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간편주의(실용주의) 어문관,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위민주의¹⁸⁾ 어문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IV. 지식영의 어문연구와 어문운동

1. 어문연구

지식영이 언제 어떤 동기로 국어국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영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직접적인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그 동기 또는 계기를 짐작해 왔다.

지식영이 국어국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로 흔히 언급된 것은 姜瑋로부터의 영향이었다. 지식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 지운영, 유길준 등과 함께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한 강위에게서 강론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시를 읊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⁹⁾ 강위는 잘 알려진 것처럼 한학자이기는 하지만 민족자각의식이 강했던 개화파 인물이고(이병근 1998:3), 〈동문자모분해〉를 짓는 등 한글 연구에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다. 이 노우에(井上角五郎)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²⁰⁾ 한국 최초의 신문인 <

18) 김성진(1973:284)에서 지식영을 '한글 개량운동을 전개시킨 위민주의인(爲民主義人)'이라고 한 바 있다.

19) 강위는 50세 전후한 시기에 광고 일대의 역관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시를 읊기도 했는데, 이 시절에 강위를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시를 읊은 인물 중에 지운영, 지식영 형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주승택1991: 102)

20) 井上角五郎, 〈漢語混合體 創始에 對하여〉(二), 《每日申報》, 1938. 5. 4일자 1면.

漢城旬報》을 간행하기 위해 준비할 때(1882년 말 내지 1883년 초) 자신은 국한문혼용체를 개발하려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강위를 가정 교사로 두고 연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면 당시에 강위는 한글 연구가로서 명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석영은 《大韓國文說》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는데,

皇室之寶文教其中指南也 惜乎 世遠教弛多失真諦 且學問家不思研究 一任鹵莽民間 訓蒙轉轉訛誤 爲有志者所共憂 往年與姜秋琴先生晤也 [황실(나라)의 보배로운 문자이며 가르치는 기본 수단이다. (그런데) 슬프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이 해이해져 참된 이치를 잃은 것이 많고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칠고 서툰 민간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점점 잘못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는 바가 되었으며 예전에 강주급(강위) 선생님과 더불어 한탄하기도 하였다.](大韓國文說 序, 밑줄은 필자, 以下同)

이로써 본다면 강위는 學問家들이 언문을 연구하지 않아서 언문이 ‘轉轉訛誤’ 된 것을 한탄했던 듯하고, 제자들도 이에 동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석영의 국어국문에 대한 관심이 강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동준(1997: 39)은 강위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유길준, 지석영에게 영향을 끼쳐 유길준은 국한문 혼용의 문체개발과 국어 문법서 저술로 이름을 떨쳤고 지석영은 젊어서부터 국문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만년에 국문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하나는 지석영이 종두법을 배우기 위해 부산에 갔을 때 《交隣須知》와 《隣語大方》의 한국어 부분을 당시의 경성어로 교정하는

나의 見學旅行의 目的是 漢諺混合의 文章을 創始하는데 잇섯슴으로 漢城 旬報를 發刊하기 前에 特히 姜璋라는 사람을 家庭教師로 두고 研究를 썼는 同時에 漢諺混合의 模範을 만드러 사람들에게 보인 즉 大概是 이것을 便利한 것으로 認定하는데도 不拘하고 (중략) 諺文을 使用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해야 나의 主張은 實行이 안되고 旬報는 純漢文으로 發行하게 되었을 際에… (이하생략)

일을 했던 것이 국어국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려는 견해이다.

氏は 明治十二年, 釜山に於いて 浦瀨氏を助けて 交隣須知や隣語大方の 京城語修正に 參與してから 朝鮮の諺文に 關係が生じ, 以來 外國人と 交際するに及び, 朝鮮の諺文なるもの 重要なことが 明かになつて 來るにつれて, これが 研究をも 怠らなかつたのであつた(이완응 1928)

한국어의 실제적인 자료를 다루어 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인 한국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라세를 만났다는 점에서 보면 부산에 머문 2개월 동안이 국어국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하고 국어국문 정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처음으로 국어국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국어와 국문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기는 했을 것이나 젊어서부터 국어국문연구에 몰두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여세 무렵에 의학을 공부하려고 결심한 이래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의학이었다. 그것도 서양 의학이었다. 종두법을 습득하여 보급하고 서양의학을 나름대로 학습하여 한국에서의 서양의학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가 설립되자 교장의 직을 맡아 서양식 의사를 길러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때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와중에서 그의 청·장년 시절에 국어국문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그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의학 지식이나 위생 지식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듯한데, 의학 지식이나 위생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듯하다.²¹⁾ 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최초의 위생학서라

21) 이관일(1994: 91)은 지석영에게 있어 국문은 의술을 보급하고 새 문물을 받아들이는 도구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고 할 수 있는 《신학신설》을 순국문으로 집필한 것은(1891년) 그러한 그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신설》의 '서'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병의 근원을 끊는 이치(아마도 병의 예방법을 말하는 듯함)에 밝게 한다면 누구나 강녕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위생 지식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학신설》을 집필하면서 그는 당시의 한글 표기법이 정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표기법을 통일시켜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하나 아직은 여전히 표기법이 제대로 정비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국문과 관련된 업적을 내지는 않았다.

지석영의 국문과 관련한 최초의 업적은 1896년에 《大朝鮮獨立協會報》에 실은 〈국문론〉이다. 이 글에서 지석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문 귀중한 줄을 모르고 한문 좀 하는 사람들은 국문을 계집사람의 글이라 하여 무시하는데, 그 이유는 한자나 우리말을 국문으로 적어 놓으면 소위 동음이의어가 분간되지 않아서 어음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동(東) : 동(動) : 동(棟)' 이 구별되지 않으며, '버릴(棄) : 버릴(列)', '들(擧) : 들(野)' 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해결책으로서 세종께서 창안하셨던 방점법의 재도입을 주장하였다.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고저를 표시해 주면 동음이의어가 잘 구별될 수 있어서 어음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이 국문을 귀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문으로 어음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독립하는 나라에 확실한 기초가 되리라고 하였다.

그러면 지석영이 〈국문론〉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국문 사용과 관련한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쓰여진 1896년이면 국문 사용을 칙령으로 공식화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적지 않았다. 국문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문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식자층이었다. 이들이 국문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문이 미진한 것이 많다는 것과²²⁾ 국문으로 쓰인 글은 읽기가 어렵다, 즉 의미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들은 당시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음소적 표기를 하는 데다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표기법이 정제되어 있지 않았으니 국문이 미진하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었고, 한글로 된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한문으로 된 글보다 어렵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²³⁾

따라서 국문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했다. 그러한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문사용의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띄어쓰기를 비롯한 표기법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자주성을 들었다. 독립된 국가로서 자기 나라 문자가 있는데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물과 관련된 지식을 빨리 받아들이고 널리 보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문을 배워서 한문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으려면 수십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한문의 폐해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국문으로 쓰인 글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띄어쓰기를

22) 후세 사람이 강병 학들 안고 우리국문이 미진 흔거시 만타 학야 귀 혼 줄을 모르니(지석영: 국문론)

23) 이러한 사정은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잘 말해 주고 있다.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혼 까닭에 국문만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히 잘 알아보지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요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직는 말마디를 췌이지 아니하고 그져 줄줄 너러 쓰는 싸됨에 글즈가 우회 부터는지 아릭 부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 분후에야 글즈가 어딴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혼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쓰는고로 서툰이서 잘못봄이라”

실행하였다.²⁴⁾ 주시경은 새로운 표기법, 즉 본음주의 표기법을 창안 하였는데, 주시경 자신이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주시경의 본음주의 표기법은 의미파악에 편리한 표기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석영의 〈국문론〉을 다시 보면 그것은 결국 국문으로 쓰인 글의 의미파악을 수월하게 하는 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방점으로 동음이의어를 구별하여 줌으로써 국문 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²⁵⁾.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국문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한문하는 사람들이 국문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석영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 〈국문론〉은 국문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최초로 제시한 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러한 방점법이 현대 한글 표기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이 〈국문론〉을 통해서 지석영이 국문에 대해서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문으로 적었을 때의 동음이의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국문에 뜻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 누누히 강론을 했다고 했는 바,²⁶⁾ ‘항상’, ‘누누히’ 같은 표현을 통해서 국어국문에 대한 관심이 오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석영의 다음 업적은 〈新訂國文〉(1905년)이다. 지석영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新訂國文講義疏〉에서 국문은 교육의 도구인데 그것이 혼란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빨리 정리(정비)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 〈신정국문〉이

24)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또 귀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 보기 쉽도록 흠이라”,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떼어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있는말을 자세이 알아보게 흠이라” 라고 하였다.

25) 이기분(1977:172)에서도 ○나 유사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26) 내가 항상 여겨 답답한 마음이 잇서서 국문에 유의 혼다 혼는 사람을 더 하면 미상불 노노히 강론하더니 〈국문론〉

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개화기 이후 최초의 국문정리 업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면 〈신정국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그 내용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서는 〈신정국문〉에 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는가를 구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신정국문〉은 6개의 辨(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번째 조항은 ‘新訂國文五音象形辨’이다. 이것은 국문의 제자원리를 설명한 것인데 국문의 연원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이후 국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궁금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문의 연원 내지는 기원설 같은 것이었다. ‘國文研究會趣旨書’에서도 보면 이 연구회에서 먼저 연구할 것은 ‘국문의 源流’라고 하였다.²⁷⁾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식영은 비록 홍양호의 《經世訓民正音圖說》에서 가져오기는 했으나 나름대로 문헌을 뒤져서 훈민정음의 상형설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국문의 연원 문제는 국문연구소의 주제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필자의 지나친 추측일지는 모르나 이 당시 사람들은 국문의 연원을 밝히는 것이 국문 위상을 정립하는, 혹은 국문 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닌가 한다.

두번째 조항은 ‘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이다. 이것은 당시의 국어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를 제시한 것이며 8종성법(실제로는 7종성법)에 의한 표기법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최세진의 《훈몽자회》를 모방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세기 말, 국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국문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다는 것, 원래의 명칭은 訓民正音이었고 글자수는 28자였다는 것, 28자 중 현재 쓰이지 않는 글자는 ‘ㅁ, ㅂ, ㅅ’이라는 것, ‘.’는 그 음가가 모호하다는 것 등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

27) ‘不得不先究國文之源流’, 《황성신문》 1907. 1. 12. 3면 잡보.

의 실제 표기법에서는 종성으로 7자만 쓰였다. ‘ㄷ’을 받침으로 쓴 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었다면 ‘초성중성통용8자, 초성독용자6자’가 아니라 ‘초성중성통용7자, 초성독용자7자’로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는 결국 ‘7종성법’에 따른 표기법을 주장한 것이다. 그의 구체적인 표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세번째 조항은 ‘新訂國文合字辨’이다. 이 조항 역시 《훈몽자회》의 합자법³⁰⁾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합자법은 국문(한글)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국문에 의한 표기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영은 표기법의 일환으로 합자법을 여기에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영은 〈대한국문설〉에서 어린이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에 ‘初中聲을 併合야 成音 홀 줄을 講究치 못하고 但 成字한 後(의) 音으로 混淪讀去하야 轉轉誤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지식영이 반절표를 가지고 한글 교육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기본 자모를 가르친 다음 합자법을 가르쳐서 한글 운용법을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밖에 반절표 154자 중에 疊音, 失音된 글자가 상당수 있어서 반절표의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절표를 가지고 한글 교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합자법에 의한 한글 교육을 제안한 것인지도 모른다.

네번째 조항은 ‘新訂國文高低辨’이다. 이것은 ‘상성, 거성’과 ‘曳聲’(긴소리)에 ‘左加一點’하자는 것인데, 방점법으로 동음이의어를 구별해 주자는 것이다. 이는 지식영이 일찍이 〈국문론〉에서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실용성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섯번째 조항은 ‘新訂國文疊音刪定辨’이다. 이 조항은 ‘ㄹ ㄴ ㄷ 르……’ 등을 ‘가 나 다 라……’로 표기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ㄹ’가 ‘ㄴ’와 同音이므로 ‘ㄹ’를 폐기하고 ‘ㄴ’로 적히던 것들을 ‘ㄴ’로 표기

30) 《훈몽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以 ㄱ 爲初聲 以 ㄴ 爲中聲 合 ㄱ ㄴ 爲字則 가 此家字音也 又以 ㄱ 爲終聲 合 가 ㄱ 爲字則 각 此各字音也 餘倣此

한다는 것으로서 ‘.’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폐기를 가장 먼저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여섯번째 조항은 ‘新訂國文重聲釐正辨’이다. 이것은 ‘ㄱ ㄷ ㅂ ㅅ ㅈ’의 硬音, 즉 된소리를 ‘ㅅ ㅅㅅ 새 ㅅㅅ ㅅㅅ’과 같이 ㅅ계합용병서로 표기한다는 규정이다. 전통적으로 된소리는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해 왔는데 개화기에 오면 된소리를 각자병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표기법을 정비하려면 이 문제도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해야 했는데, 지석영은 음리상으로는 된소리가 홀소리의 겹(重聲)임을 인정하지만 표기는 ㅅ계합용병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ㅅ계합용병서의 ‘ㅅ’은 漢文家에서 同字를 표시하는 부호 ‘<’에서 왔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까 ‘ㅅ’은 음가상으로는 ‘ㅅ’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 합당한 주장은 아닌 듯하다. 지석영은 된소리 표기에 있어서 전통을 따르되 그 전통적인 표기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찾으려 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가 찾아낸 근거는 타당한 것이 못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신정국문〉은 당시에 국문과 관련해서 논란이 분분했던 문제들을 정리해서 종합한 개화기 이후 최초의 국문 표기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석영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이 많지는 않지만 ‘參互古今 時宜에 允當하게 校正’한³¹⁾ 표기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신정국문〉의 의의는 매우 큰 것이라 하겠다. 다만 〈신정국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개음화와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單母音化로 인한 표기법의 혼란을 수습할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저, 지’, ‘터, 처, 처’, ‘디, 지’, ‘티, 치’ 등이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표기법 규정도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었는데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지석영이 〈新訂國文講議疏〉에서 現用 언문 14행 154자 중 疊音이 36자요 失音이 36자라고 한 것을 보면 구개음화와 치찰음 뒤

31) 〈國文校正〉, 《황성신문》 1905. 7. 21. 雜報.

에서의 이중모음의 單母音化로 인해서 침음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표기법의 혼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이들 침음을 산정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³²⁾ 왜 ‘新訂國文疊音刪定辨’에서 ‘.’ 관련 사항만 언급하고 구개음화와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單母音化로 인해서 발생한 침음의 刪定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³³⁾

지석영의 다음 업적은 1909년 국문연구소에 제출한 〈國文研究案〉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70: 101-103)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지석영의 국문에 대한 견해는 〈신정국문〉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된소리 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ㅅ계 합용병서를 주장하였고, ‘.’는 폐지하고 ‘ㄴ’자를 신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받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7종성법을 주장하였다. ‘ㄷ’자 종성이 이미 ‘ㅅ’자와 합용되었으니 ‘ㄷ’자를 종성으로 별도 설정하는 것은 ‘必要가 無하다’고 하였으며, ‘ㅅ ㅆ ㅋ ㅌ ㅍ ㅎ’ 등과 관련하여서도 이들을 종성으로 사용하면 ‘音理난 비록 固然하드래도 世眼에 生疎’하여 行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을 종성으로 쓰는 것은 ‘留案함이 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종성으로는 ‘7종성(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사용하자고 주장한 셈이다. 지석영은 ‘ㅅ ㅆ ㅋ ㅌ ㅍ ㅎ’을 종성으로 사용할 경우, 이런 종성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ㅅ ㅆ ㅌ ㅎ’은 ‘ㅅ’과 혼용되고 ‘ㅍ’은 ‘ㅂ’과 혼용되는 ‘末流之弊’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위치에서는 소위 중화가 일어나서 ‘ㅅ ㅆ ㅌ ㅎ’이 발음상 구별되지 않으며 ‘ㅍ’과 ‘ㅂ’이 구별

32) 《대한미일신보》 1904. 9. 16일자 〈잡보외방통신〉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국문기정 직작일에 린동 예수교회당에 서양목스 모모제씨가 회동하였다가 대한국문의 지정홀스를 연설하였는디 그 지정홀는 기의를 드른즉 국문 반절 에 동음으로 두세 가지 되는 거슬 한 가지 음만 두기로 산정하였다더라

33) 구개음화와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單母音化로 인해서 발생한 침음의 刪定은 《字典釋要》 범례에서 명문화된다.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방점법과 관련하여서는 上去 二聲과 국어음 高聲에는 각각 右肩에 1점을 찍는 것이 便當하다고 하였다. 〈신정국문〉에서 ‘曳聲’이라고 했던 것을 ‘高聲’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자모 명칭, 자모의 배열순서 등에서도 차이가 없는데 다만 모음자에서 ‘·’를 폐기하고 ‘ㄴ’를 창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으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모음자에 ‘·’를 포함시키고서는 글자 아래에 ‘이으슴훗’이라고 하였는바, 왜 여기에서는 ‘ㄴ’를 제시하지 않고 ‘·’를 그대로 제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상 지석영의 표기법 규정들을 살펴본 셈인데, 이기문(1970: 10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표기법은 보수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는 누누히 쉽고 간편한 표기법,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지 않을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혁신적인 변화를 원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표기법을 주장한 셈이 되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지석영의 업적은 국문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이를 제시한 한자학습서와 한자자전을 편찬하거나 간행한 것이다. 《독립신문》의 다음 기사를 보면 지석영은 이미 1890년대 말에 옥편을 간행하려고 했던 듯하다.

지석영씨가 스년 동안에 한문 옥편을 국문으로 번역 하여 쉬히 기간 훈다 하니 아마 이 옥편을 기간 하여 세상에 전 하면 대한 남녀의게 미우 유조 홀터이니 지씨가 학문 상에 유의 홀쫘더러 동포 남녀들을 위 하여 이 곳훈 스업을 힘 쓰니 대단히 조흔 일이더라(독립신문 1897. 11. 20 4면 잡보)

그러나 이 기사에서 언급한 옥편이 간행이 되었는지, 간행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한 실물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옥편이 간행되었다면 이것이 지석영의 한자자서 관련 첫 번째 업적이 되었을 것이다.³⁴⁾

34) 이때 간행하려고 했던 것이 《訓蒙字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자자서와 관련된 지식영의 첫 번째 업적은 《訓蒙字略》이다. 이 책은 한자 3104자에 대하여 한글로 훈과 음을 제시한 字書인데 간행되지는 않았다. 현재 원고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자자서 관련 두 번째 업적은 정약용의 《兒學編》을 다시 편찬하여 간행한 것이다. 세 번째 업적은 《字典釋要》(1909년)의 편찬·간행이다.³⁵⁾ 《자전석요》에서 그는 최초로 현실한자음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현대 한국한자음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여 년 전에 간행된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고수하려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식영이 《자전석요》에서 현실한자음을 제시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1915년에 간행되는 《新字典》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현실한자음 표기를 지식영은 과감하게 실천하였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가 늘 보수적이지만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의 마지막 업적은 《言文》(1909년)이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상편에서는 우리나라 한자어 19,000여개를 국문·한자 병렬로 제시하였고(예: 가로街路 가곡歌客) 하편에서는 상편에서 쓰였던 한자들을 음별로 모아놓고 각 한자에 훈을 제시해 주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한자어 어휘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국문을 사용하는 어문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책의 광고문에서는 ‘蒙昧를 啓導 하는 光線’이라고 하였다.³⁷⁾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한자음 표기

35) 《자전석요》는 1909년에 간행되었는데, 서문을 1906년에 쓴 것을 보면 책의 원고는 1906년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황성신문》의 다음과 같은 기사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有志竟成

大韓醫院舍監 池錫永氏가 我國의 字書を 國文으로 解釋하여 字典釋要 二冊을 纂輯하고 學部에 請願하여 板權을 認許하였다니 氏가 十餘年の 苦心을 費하여 未曾有한 字書を 창유하고 板權까지 承認하였스니 (황성신문 1907. 12. 8. 잡보)

36) 이 《言文》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이병근(1998) 참조.

37) 《言文》에 대한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7일자 광고 참조(이관

에서 《자전석요》와는 달리 현실 한자음대로의 표기를 하지 않고 전통적인 한자음 표기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책이 교과서적인 성격의 책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 당시 어문정책상으로는 한자음을 현실한자음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교과서 성격의 책을 간행하면서는 당시의 어문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어문운동

지석영의 어문운동과 관련된 자료도 별로 없다. 따라서 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간략히 논의해 보겠다.

지석영의 본업은 의학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의 대표적인 국문연구가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국문연구가였을 뿐만 아니라 어문운동을 펼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국문사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국문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순국문으로 《신학신설》이라는 위생의학서를 집필하였고, 오로지 국문만으로 가르치는 국문학교를 특설할 것과 經史諸書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刊布할 것을 학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³⁸⁾ 김가진이 설립하려한 사립국문학교의 교감으로 내정되기도 하였다.³⁹⁾ 이 사립국문학교는 校舍 건축을 시작했다는 기사까지는 있

일 1994:105에서 재인용).

大韓人民이 毋論京鄕고 行用호는 言語가 漢文音으로 된 것이 太半인바 無識호는 男子와 婦人 小兒들은 입으로는 움기되 如何호는 글조인 줄은 알지 못호는지라 池松村先生이 此를 慨歎호야 我國 言語에 漢字音으로 國語된 것을 類輯호야 此書를 編成호니 實로 蒙昧를 啓導호는 光線이라 潛心 閱覽호면 言文이 一致호야 全國 同胞가 거의 一人도 書札 通情못함이 업슬 것이오 外國人이 韓語를 講習호는디 津筏이 될지라

38) 〈國文學校設立瑣聞〉, 《황성신문》 1902. 2. 13. 論說 참조.

39) 〈國文校任員〉

金嘉鑑氏가 私立國文學校를 설립코저 學部認許를 得호는 本報에 已記호였 거니와 該校長은 金嘉鑑氏오 副校長은 義陽君 李載覺氏오 事務長은 趙東完

으나⁴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식영은 1905년 〈신정국문〉을 지어 국문 개정에 관한 상소를 하였다. 〈신정국문〉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되었다. 지식영은 또 〈대한국문〉이라는 한 장짜리 한글 교재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한글 보급에도 기여했다. 1907년에는 국문연구회를 조직하여 국문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 국문연구회에는 주시경도 참여하였다. 이 국문연구회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어문관련 연구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⁴¹⁾ 국문연구소가 개설된 얼마 후부터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10여 년간 작업 끝에⁴²⁾ 국문으로 음과 뜻을 풀이를 제시한 《자전석요》를 편찬,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자전석요》는 현대 한국한자음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로서는 한자음 정립이 한글 표기법 정립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러한 한자음 정립은 한글 표기법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이 없던 당시로서는 《자전석요》의 자훈 부분 한글 표기는 한 동안 우리말 한글 표기의 규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표기법이 나름대로 정제된 것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한자어 어휘를 정리한 《언문》을 편찬하여 대중들의 어문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상 간략히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지식영은 개화기 대표적인 어문운동가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관직에도 있었기 때문인지 학부에 어문관련 건의를 하기도 하고 상소를 올려 어문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어

氏오 校監은 池錫永氏라더라(황성신문 1902. 2. 15. 4면)

40) 《황성신문》 1902. 4. 17. 4면, '國文校 醜金'

41) 주시경의 국문동식회가 먼저이기는 하나 국문동식회는 조직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문동식회를 최초의 어문관련 연구회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에 반해 국문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졌다(황성신문, 1907.2.6. 1면, '國文研究會組織')

회장: 윤효정, 총무: 지식영, 연구원: 주시경, 박은식, 이능화 등, 편찬원: 지식영, 유병필, 주시경, 서기: 전용규

42)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의 주35)의 《황성신문》 기사 참조.

문과 관련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V. 지석영의 표기법

지석영이 한글 및 한글 표기법을 어떻게 익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일반적인 한글 학습 방법을 고려하면 반절표를 가지고 한글 및 기초적인 한글 표기법을 익힌 다음 한글 문헌(언해서류)을 통해서 세부적인 표기법을 익혔을 것으로 여겨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세기 초까지 한글 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기초 교재는 반절표이었다.⁴³⁾

지석영은 한글 표기법과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한글 표기법을 익혀서 순한글 문장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신학신설》이라는 순한글로 된 책을 집필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한글표기법은 상당히 혼란된 상태의 것이어서 지석영의 초기 글에서도 그러한 혼란상이 드러난다. 지석영은 그러한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나름대로의 정비된 표기법을 보여 주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석영의 표기법은 주시경의 표기법과는 달리 이론적인 표기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표기법이었다.

지석영의 표기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891년 《신학신설》(원고본)
- 1896년 <국문론>
- 1901년 《訓蒙字略》(원고본)⁴⁴⁾
- 1908년 《兒學編》

43) 반절표와 전통시대 한글 교육에 대해서는 송철의(2008) 참조.

44) 이병근(1998: 4)에서 《훈몽자략》을 1901년에 지었다고 하였다.

- 1909년 <國文研究案>
 1909년 《字典釋要》
 1909년 《言文》

지석영의 구체적인 표기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당시 한글 표기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간략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석영은 나름대로 자기의 표기법을 정비해 나갔는데, 그 과정은 결국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표기법을 정비해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19세기 후반) 한글 표기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언어 변화를 표기법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표기가 극심한 혼란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법의식을 표기법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일률적이지 못하여 역시 표기상의 혼란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잘못된 표기법의 전통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표기가 일부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언어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표기의 혼란을 세부적으로 열거해 보면 (1) ‘·’와 관련된 것(사름/사람), (2) 구개음화와 관련된 것(턴디/천지), (3)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된 것(섬/섬, 다/적다), (4) ‘-|’ 변화와 관련된 것(여귀)여기, 기운)기운), (5) 두음법칙과 관련된 것(란간/난간, 량식/양식), (6) 어두 ‘|’ 앞에서의 ‘-|’ 탈락과 관련된 것(너름/여름, 다/읽다) 등이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음운변화가 완료된 것들인데 표기법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이들 변화가 표기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이들과 관련한 표기법의 정비가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진 바 없어서 표기상의 혼란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문법의식과 관련된 표기법의 문제로는 분철표기의 문제, 유기음의 재음소화 표기 문제, 사이시옷 표기 문제 등이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글 창제 이후 한글 표기법은 연철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

데 문법의식이 나타나면서 어간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분간하여 표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중철표기라는 과도적인 표기법도 나타나게 된다. 19세기는 이러한 세 가지 표기법, 즉 연철표기, 중철표기, 분철표기가 혼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표기법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가 '이거시, 이것시, 이것이'로 표기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유기음의 재음소화 표기도 분철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받침표기를 7중성으로 국한시킨 상태에서 분철표기를 하자니 자연히 어간말음이 유기음인 경우들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기음을 재음소화하여 하나는 선행음절의 말음으로, 하나는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표기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깊 + 으니'를 전통적으로는 '기프니'로 표기하여 왔으나 이 시기에 오면 이것을 '김프니'와 같이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절충적인 표기로서 '김프니'와 같은 표기도 있었다.

사이시옷 표기 문제란 사이시옷을 어떤 위치에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선행어의 중성으로 표기할 것인가(맷돌), 후행어의 초성과 함께 표기할 것인가(매쫂), 혹은 선행어와 후행어의 사이에 표기할 것인가(매스돌) 하는 문제이다.

잘못된 표기법의 전통이란 'ㄷ' 받침을 'ㅅ'으로 표기한 전통을 말한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받침 'ㄷ'과 'ㅅ'이 잘 구별되어 표기되다가 음절말 위치에서 'ㅅ'이 'ㄷ'으로 중화되면서부터는 잠시 원래의 받침 'ㅅ'을 'ㄷ'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음운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일 것이다. 그러다가 17세기 초엽부터는 'ㄷ' 받침을 'ㅅ'으로 표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17세기 후기가 되면 받침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종래의 '8중성법'이 '7중성법'으로 정착되어 갔다(이익섭 1992: 325-349). 그런데 받침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음리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개화기 한글 표기법 논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밖에 이 시기의 표기법을 고찰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

나 더 있다. 고유어 표기와 한자음(또는 한자어) 표기를 구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고유어 표기와 관련해서는 표기의 근거로 삼을 만한 어떤 규범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자음과 관련해서는 《奎章全韻》과 《全韻玉篇》이라는 御定 운서와 옥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200여 년 전에 편찬된 것이어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들 중 상당수는 현실 한자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만 개화기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한자음의 표기를 이들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음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표준 한자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御定이기 때문에 더욱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유어 표기에 있어서는 현실음대로의 표기가 비교적 쉽게 정착되었지만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는 현실음대로의 표기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19세기 후기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식영의 실제 표기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언어 변화와 관련된 표기

(1) ‘.’ 표기

개화기 표기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 자였다. ‘.’ 자는 당시 표기법 논란의 주범으로 인식될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윤치호와 지식영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문은 지극히 편리고 지극히 용이 하나 아(ㅏ·)음이 들어 되는 고로 가랑 네 사름이 사름인즈를 쓰랴면 혹은 (사람) 혹은 (사름) 혹은 (스람) 혹은 (스릅)이라 쓰니 뉘가 울코 뉘가 그른지 엇지 알니요 (윤치호, 《독립신문》 2권 62

호, 1897. 5. 27일자)

以上 論述한 바를 據한즉 ·字의 本音이 分明 是 | 一의 合音이어날 近俗에 卜字의 發音과 同一하야 萬口一聲인바 由是로 弊害甚多하야 枚舉하기 難하나 其一二를 槩論할진대 心을 只음이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하고 只음이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하며 海를 ㅂ드라도 하고 바다라도 하고 ㅂ다라도 하고 바드라도 하야 四種으로 譯하야도 無碍하리니(지석영, <국문연구안>, ‘五 中聲中·字廢止=字棚製의當否’)

위와 같은 언급은 하나의 단어가 심하게는 네 가지로 표기될 수도 있음을 말한 것일 터인데, 이는 결국 ‘·’의 사용과 관련한 표기법이 극심한 혼란을 보이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이미 음가를 소실한 문자였으니 그 사용에 혼란이 일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 폐기를 가장 먼저 선언한 사람이 지석영이었다. 그는 <신정국문>(1905년) ‘疊音刪定辨’에서

ㅁ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卜 四字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字의 疊音으로 用하기에 刪定함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를 폐기하고 ‘卜’자로 표기되던 것들을 ‘卜’자로 표기한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⁴⁵⁾

한편 1909년 국문연구소에 제출한 <국문연구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此에 人이 有하야 書籍을 譯할새 第一冊에난 海를 바다로 譯하고 第二 第三 第四에난 ㅂ드 ㅂ드 ㅂ다로 譯하며 甲은 바다로 譯하난대 乙과 丙과 丁은 ㅂ드 ㅂ다라 譯하면 非眞 全一하지못하야 歧異와 雜黃을 惹生할 뿐 아니라 文明의 面目에 大段이 妨害가 有하리니 所以로 ㅁ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等 十四字난 廢止하야 가나 等 十四字와 疊音되난 弊를 改善하난 것이 必要하다하나이다.(지석영, <국문연구안>, ‘五 中聲中

45) 비슷한 내용이 <字典釋要 凡例>에서도 다시 언급되었다.

諺文每行尾末之 ㅁ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等字 各有本音 而今并通用於每行頭字 讀若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尤屬無證 并廢之 而直用頭字

· 字廢止 = 字制製의當否)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음운으로서의 ‘·’는 대체로 제2음절이 하에서는 ‘一’로 변하고(사슴(鹿))사슴), 제1음절에서는 ‘卜’로 변했는데(다리(橋))다리), 지식영을 비롯한 개화기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자가 ‘卜’자와 음가가 같다는 식으로만 인식을 하였다. 그래서 ‘·’자로 표기되던 것들을 ‘卜’자로 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늘(天), 가르치(教)’를 ‘하늘, 가르치’로 표기하지 않고 ‘하날, 가라치(갈아차)’로 표기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 당시의 현실 발음은 ‘하늘, 가르치’였을 것인데, ‘·’와 ‘卜’가 同音이라는 인식이 작용하여 ‘하늘, 가르치’에서의 ‘·’자를 기계적으로 ‘卜’자로 대치함으로써 ‘하날, 가라치’와 같은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식영의 실제 표기에서는 ‘·’자 사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신정국문〉 이전의 글들에서는 당연히 ‘·’자를 사용하였다. 《신학신설》, 《훈몽자략》, 〈국문론〉의 경우를 보자.

《신학신설》: 비록이로되, 정현비 있다. 싸지논, 뒤기, 횡동, 청희서, 오릭, 사논
 〈국문론〉: 형용 호논, 사롭의, 말습, ㄱ호니, 호되, 칭각호야도, 군즈논, 쓰논 으희
 를, ㄱ르침, ㄱ라치라, ㅁ음이, 호나를, 불히어서

《훈몽자략》: 가운뒤, 오릴, 호날, 칭각, 들썩, 오릭, 홈계, 들, 아릭, 비부를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의 다른 문헌들에 비해서 ‘·’자의 사용 빈도가 훨씬 적은 편이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아마도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 있는 것은 〈국문론〉에서의 ‘·’자의 사용이 다른 경우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몇몇 어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자.

	신학신설	국문론	훈몽자략	아학편	자전석요	언문
사람	사람	사름	사람	사람	사람	사람
갓	가틀	갓흐니	갓틀	-	갓홀	갓홀
갓치-	-	갓치라	가룻칠	갈아칠	갈아칠	갈아칠
ㅎ-	잘허면	못ㅎ야	더헐(加)	더할(加)	더할(加)	더할(加)

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국문론〉이 실렸던 매체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랐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표기를 하다가 옛 한글 문헌들을 보면서 그 문헌들에서의 전통적 표기(역사적 표기)를 〈국문론〉에서 일시적으로 따랐다가 ‘·’ 자를 폐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 자를 ‘ㅏ’ 자로 대치하여 표기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 볼 뿐이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주시경에게서도 일부 나타났던 현상이다(송철의 2010: 223).

〈신정국문〉에서 ‘·’ 자 폐기를 선언한 이후에는 적어도 고유어 표기에서는 ‘·’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학편》, 〈국문연구안〉, 《자전석요》, 《언문》을 보면 고유어 표기에 ‘·’ 자를 쓴 경우가 없다.⁴⁶⁾

《아학편》: 하늘, 아들, 마암, 흙, 닭, 사슴

〈국문연구안〉: 用할, 用하난, 하면, 當時에난, 하난지라, 송아지난, 하지아늘뜻한대, 되난대

《자전석요》: 아래, 오렐, 하늘, 바람, 흙, 닭

《언문》: 오렐, 쌀, 흙, 닭, 말(馬), 가운데, 다리(橋)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국문설〉 후편에서는⁴⁷⁾ ‘·’ 자를 사용하였다.

46) 《언문》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 직조 기(技), 으희 동(童), 식집 서(樓), 으달 자(滋) 등.

47) 《대한자강회월보》 13호, 1907년 7월.

恭錄호마, 讀호며, 點일식, 言홀진되, 有호거늘, 卜字늘, 想컨되, 初聲에는, 至호야늘 등

cf. 深思함애, 合하야, 못하고, 無하니

‘호’의 경우에는 ‘호’와 ‘하’가 거의 반반씩 혼기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랬든 〈신정국문〉 이후의 글에서 고유어 표기에 ‘·’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한자음 표기에서는 《아학편》에서부터 ‘·’자를 사용하지 않는데, 특히하게도 《언문》에서는 ‘·’자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몇 예씩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신학신설》⁴⁸⁾: 티원(太原), 휘(害), 횡동(行動), 기환(改換), 척소(菜蔬)
 《훈몽자략》: 선비 스(士), 맛 백(伯), 대신 뒤(代), 안 다투(內), 사기 스(史), 아들 즈(子)
 〈국문론〉⁴⁹⁾: 횡용(行用), 본리(本來), 칩(冊), 즈(字), 군즈(君子)
 《아학편》: 아들 자(子), 선배 사(士), 안 내(內), 맛 백(伯)
 《자전석요》: 아들 자(子), 선배 사(士), 안 내(內), 맛 백(伯), 대신 대(代) 사기 사(史)
 《언문》: 으달 즈(子), 선배 스(士), 안 다투(內), 맛 백(伯), 뒤신할 뒤(代), 스키 사(史)

《아학편》, 《자전석요》에서는 한자음 표기에서도 ‘·’자를 폐기했다가, 《언문》에서는 왜 한자음 표기에서 ‘·’자를 부활시켰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언문》이 교과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당시의 어문정책이 한자음은 역사적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아학편》, 《자전석요》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자음 표기에서 ‘·’를 제일 먼저 폐기한 사람은 지식영인 셈이다.

48) 《신학신설》은 한글전용이어서 원전에는 한자가 없다. 괄호 속의 한자는 필자가 채워 넣은 것이다. 이하도 마찬가지다.

49) 〈국문론〉도 한글전용이어서 원문에는 한자가 없다. 괄호 속의 한자는 필자가 채워 넣은 것이다. 이하 마찬가지다.

(2) 구개음화와 관련된 표기

구개음화도 형태소 내부의 경우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개음화를 표기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 먼저 고유어의 경우를 보자.

- 《신학신설》: 고치면, 고치고, 지나지, 갖치, 조흔이라, 조하현이. 엇지, 먼허지,
cf. 도하하야, 도흔일, 마시던디, 먹던디, 엇디
《훈몽자략》: 조을 호(好), 겨를 단(短), 엇지 하(何) 붓쳐 불(佛), 칠 타(打), 셔러
질 락(落) cf. 더 이(伊), 더 피(彼), 고틸 기(改), 어덜 량(良)
《국문론》: 엇지, 이긋치
《아학편》: 저 피(彼), 조을 호(好), 저를 당(短), 칠 격(擊).
《자전석요》: 저 이(伊), 조을 호(好), 저를 단(短), 칠 타(打), 고칠 개(改), 씨를 자(刺)
《언문》: 저 이(伊), 조을 호(好), 겨를 단(短), 칠 타(打), 고칠 기(改), 씨를 즈(刺).

위에서 보면 《신학신설》과 《훈몽자략》에 구개음화되지 않은 형태가 약간 나타나나 대체로는 구개음화를 반영한 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문론》 이후에는 고유어 표기에서 구개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자음 표기에서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표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신학신설》: 천하(天下), 경(定), 치병(治病), 제일(第一), 전기(電氣). cf. 디(至),
디면(地面)
《훈몽자략》: 덩(丁), 턴(天), 덩(定), 테(體)
《국문론》: 어정(御定), 세종조(世宗朝) cf. 데일(第一),
《아학편》: 뉐(電), 덩(頂), 데(帝), 디(地), 털(鐵), 테(體)
《자전석요》: 정(丁), 정(定), 제(帝), 지(地), 천(天), 철(鐵), 철(凸)
《언문》: 덩(丁), 덩(定), 데(帝), 지(地), 턴(天), 테(體)

위에서 보면 《아학편》까지에서는 한자음 표기에 구개음화를 반영시키지 않은 표기가 나타나지만⁵⁰⁾ 《자전석요》에 오면 그러한 표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석영은 《자전석요》에서

구개음화가 반영된 현대 한자음을 정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구개음화된 한자음과 관련하여 지식영은 〈字典釋要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挽近諺文之訓蒙也 不能以子母合讀成音 但以成字後音 混淪 讀去 轉轉訛誤 天音 本頓 讀若천 丁音本딩 讀若정 (중략) 甚至於 다더도뚜디與자저조주지同讀 타터토틸티티與차처초추치同讀 習俗已久 有難卒變 今於此書 先書原音於逐字之下 次書現行俗音以便讀者[근래 언문을 어린이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자모를 합독하여 음(음절)을 이루게 할 줄을 모른다. 단지 글자를 이룬 후의 음(음절)만 가지고 혼탁시켜 놓았기 때문에 읽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잘못 전해져서 ‘天’의 본음은 ‘턴’인데 ‘천’으로 읽고 ‘丁’의 본음은 ‘딩’인데 ‘정’으로 읽는다. (중략) 심지어 ‘다더도뚜디’와 ‘자저조주지’를 같은 음으로 읽고, ‘타터토틸티’와 ‘차처초추치’를 같은 음으로 읽는다. (그러나) 습속이⁵¹⁾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이 책에서는 해당 한자 아래에 먼저 원음을 적고 그 다음에 현행 속음을 적어서 독자를 편하게 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구개음화를 받아들여 한자음을 현실 한자음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언문》이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간행 일자로 보면 《자전석요》보다 한 달 앞서지만, 실제 편찬된 시기로 보면 《자전석요》보다 뒤의 문헌이라고 보아야 할 《언문》에

50) 여기서도 재미 있는 것은 《신학신설》에서 구개음화가 반영된 표기를 하던 것을 《훈몽자략》, 〈국문론〉, 《아학편》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신학신설》을 집필할 때에는 한자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다른 문헌들을 참조하게 되면서, 특히 《규장전운》이나 《전운옥편》 등을 참조하게 되면서 거기에 제시된 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표준음으로 보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지식영은 《규장전운》이나 《전운옥편》의 한자음이 현실과 괴리된 한자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자전석요》에서 현실 한자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51) 여기서 ‘습속’이란 한자음을 구개음화된 대로 읽는 것을 말한다. 즉 ‘天’을 ‘턴’으로 읽지 않고 ‘천’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습속’이란 현실 한자음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서 한자음 표기가 역사적 표기로 후퇴한 듯하기 때문이다. 《언문》의 이러한 특징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교과서 또는 교재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언문》의 한자음은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 《규장전운》에서 제시되었던 한자음이다. 교과서적인 성격의 책이기 때문에 규범을 따르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된 표기

치찰음 뒤에서 ‘ㄱ ㅋ ㆁ ㅁ’가 ‘ㄱ ㅋ ㆁ ㅁ’로 되는 현상은 구개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ㄱ ㅋ’ 등이 치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구개음화됨에 따라 ‘ㄱ, ㅋ’ 뒤에서 반모음 ‘ㄴ’이 실현될 수 없게 되어 ‘ㄱ ㅋ ㆁ ㅁ’가 ‘ㄱ ㅋ ㆁ ㅁ’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로 인하여 치찰음 뒤에서의 ‘ㄱ:ㄱ, ㅋ:ㅋ, ㆁ:ㆁ, ㅁ:ㅁ’의 대립은 중화되었다. 따라서 치찰음 뒤에서는 단모음(ㄱ ㅋ ㆁ ㅁ)과 이중모음(ㄱ ㅋ ㆁ ㅁ)이 발음상 구별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표기상의 혼란이 있게 되었다.

지석영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자전석요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現行字音而天^ㄷ爲^ㄷ천 以^ㄷ丁^ㄷ爲^ㄷ정 則^ㄷ天^ㄷ爲^ㄷ有^ㄷ其^ㄷ字^ㄷ而^ㄷ爽^ㄷ其^ㄷ音^ㄷ也 他^ㄷ如^ㄷ다^ㄷ도^ㄷ도^ㄷ도^ㄷ, 타^ㄷ터^ㄷ도^ㄷ도^ㄷ도^ㄷ, 샤^ㄷ셔^ㄷ쇼^ㄷ쇼, 자^ㄷ저^ㄷ조^ㄷ조, 차^ㄷ쳐^ㄷ초^ㄷ초 亦^ㄷ爲^ㄷ其^ㄷ字^ㄷ而^ㄷ爽^ㄷ其^ㄷ音^ㄷ 今^ㄷ姑^ㄷ廢^ㄷ止^ㄷ 以^ㄷ諧^ㄷ俗^ㄷ聽^ㄷ[현행 字音에서 ‘天^ㄷ’은 ‘천’이 되고 ‘定^ㄷ’은 ‘정’이 되었다. 즉 ‘天^ㄷ 定^ㄷ’은 그 글자는 있으나 음을 잃었다. 그밖에 ‘다^ㄷ도^ㄷ도^ㄷ도^ㄷ, 타^ㄷ터^ㄷ도^ㄷ도^ㄷ도^ㄷ, 샤^ㄷ셔^ㄷ쇼^ㄷ쇼, 자^ㄷ저^ㄷ조^ㄷ조, 차^ㄷ쳐^ㄷ초^ㄷ초’도 역시 그 글자는 있으나 음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들은) 폐지하고 (현행) 속음에 합치시킨다.]

이는 ‘天^ㄷ(天), 丁^ㄷ(丁)’은 폐지하고 ‘천, 정’으로 표기하며 ‘다^ㄷ도^ㄷ도^ㄷ도^ㄷ, 타^ㄷ터^ㄷ도^ㄷ도^ㄷ도^ㄷ, 샤^ㄷ셔^ㄷ쇼^ㄷ쇼, 자^ㄷ저^ㄷ조^ㄷ조, 차^ㄷ쳐^ㄷ초^ㄷ초’를 폐지하고 이들을 각각 ‘자^ㄷ저^ㄷ조^ㄷ조지, 차^ㄷ쳐^ㄷ초^ㄷ초치, 사^ㄷ셔^ㄷ쇼^ㄷ쇼, 자^ㄷ저^ㄷ조^ㄷ조, 차^ㄷ쳐^ㄷ초^ㄷ초’로 표기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는 구개음화를 반영한 표기를 하

겠다는 의미이고 후반부는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표기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형태소 내부의 치찰음 뒤에서는 이중모음 표기(ㅈ ㅊ ㅌ ㅍ ㅍ)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 실제의 지식영의 업적들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유어 표기의 경우부터 보기로 하자.

《신학신설》: 적고, 저름이[短], 결문, 썩에, 저리고, 먼저, 나제
cf. 조곰도, 안에서, 어더선

《훈몽자략》: 섬[島], 목숨[命], 젓[乳], 이제[今], 먼저[先], 선비[士], 결물[少]
cf. 서울[京], 선비[儒]

<국문론>: 잇서서, 흘 슈, 들으쇼서, 국가에서, 만나서, 제가, 적다, 묻져, 조곰

《아학편》: 섬[島], 목숨[命], 젓[乳], 이제[今], 선배[士], 짚을[少], 서울[京]

《자전석요》: 섬[島], 목숨[命], 젓[乳], 이제[今], 선배[士], 짚을[少], 서울[京]

《언문》: 섬[島], 목숨[命], 젓[乳], 이제[今], 선배[士], 짚을[少], 서울[京]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유어 표기에서 치찰음 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말끔하게 정비되는 것은 《아학편》에서부터이다. 고유어 표기에서는 《언문》도 별다른 특이성을 보여 주지 않는다.

한자음 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학신설》: 총논(總論), 천하(天下), 점점(漸漸), 거처(居處), 접(接)허지, 이천(二千)

cf. 금수(禽獸), 싱장(生長), 무성(茂盛), 부족(不足), 성너(城內), 근세(近世)

《훈몽자략》: 상(上), 축(丑), 세(世), 중(中), 취(吹), 쇼(小)

<국문론>: 전일(全一), 귀중(貴重), 자세(仔細)히, 점점(漸漸), 가석(可惜), 통속(通俗), 선칭(先生), 군슈(郡守), 사고(史庫), 세종조(世宗朝), 평성(平聲)

《아학편》: 상(上), 세(細), 소(小), 사(史), 성(聲), 수(守), 접(接), 중(中), 조(朝), 중(中), 중(重), 천(天), 천(千), 처(處), 충(忠), 취(吹)

《자전석요》: 상(上), 세(細), 소(小), 사(史), 성(聲), 수(守), 접(接), 중(中), 조(朝), 중(中), 중(重), 천(天), 천(千), 처(處), 충(忠), 취(吹)

《언문》: 사(社), 상(上), 쇼(小), 성(城), 슈(守), 자(者), 장(長), 중(中), 천(千), 중

(患), 휘(吹)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자음 표기에서 치찰음 뒤의 이중모음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학편》과 《자전석요》에 와서의 일이다. 《언문》은 여기서도 예외적이다. 전통적인 한자음 표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 ‘-이’ | ‘-이’ 변화와 관련된 표기

‘ㅎ’ 이외의 자음을 초성으로 가지는 음절에서 ‘-이’가 ‘-이’로 변하는 변화는 19세기쯤에 시작되어 20세기 초반쯤에 완료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1876년생인 주시경의 후기 업적들에서는 이 ‘-이’ | ‘-이’ 변화가 적어도 고유어에서는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송철의 2010: 222-223) 1855년생인 지석영의 업적들에서는 아직 ‘-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음절초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가 유지되고 있는 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학신설》 고유어: 여기, 더디고, 더딜, 아회, 회고, 흰, 목줄씨
한자음: 기운, 공기, 전기, 양기, 탄기
- 《훈몽자략》 고유어: 곁[衞], 디릴[序], 띄글[塵], 씨[帶]
한자음: 기(几, 基, 氣), 회(希, 喜)
- <국문론> 고유어: 여기
한자음: 기록, 기초
- 《아학편》 고유어: 사나회[男], 띄글[塵], 씨[芽], 일회[狼], 거미[蛛], 모기[蚊], 독기[斧] 바디[箎], 짜비[耒], 호미[鉏]
한자음: 기운, 연기, 기린, 향기, 기(箕), 기(旗), 기(氣), 기(器), 회(喜)
- 《자전석요》 고유어: 곁[衞], 함의[俱], 이결[勝], 띄글[塵], 쓸회[根], 흰[白], 모기[蚊], 바디[箎], 대마디[節], 거미[蛛], 호미[鉏]
한자음: 식(媿), 기(基, 氣, 期, 記, 器, 己, 汽, 旗, 飢, 등), 회(喜, 希, 熙 등)
- 《언문》 고유어: 곁[衞], 독기[斧], 모기[蚊], 이결[勝], 마디[節], 띄글[塵], 흰[白], 사나회[男], 쓸회[根]

한자음: 기(基, 氣, 期, 記, 器, 己, 汽, 旗, 飢, 등), 희(喜, 希, 熙 등)
 기약(期約), 기수(旗手), 기본(基本), 기억(記憶), 기록(記
 錄), 기운(氣運), 기선(汽船), 기거(汽車)

(5) 두음법칙과 관련된 표기

개화기의 표기법에서 누구에 의해 왜 그런 표기법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자어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반영하지 않는 표기법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영(1929)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한자를 배제할 수는 없는바, 한자를 배제할 수 없다면 한자음을 정확히 붙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뿔’의 바른 음은 ‘리’이지만 어떤 때는 ‘이’로(里程 이정), 어떤 때는 ‘리’로(五里 오리), 또 어떤 때는 ‘니’로(十里 십니) 발음되어 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한자에 이 세 가지 음을 모두 붙여준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 ‘뿔’의 바른 음인 ‘리’로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音便 또는 지방적 발음의 습관으로 보자고 하였다. 이는 결국 한자음을 하나로 고정시켜 표기하지는 주장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자어의 표기에서 두음법칙은 반영되지 않게 된다. 지식영의 표기법에서 보면 《신학신설》에서는 두음법칙을 반영한 표기를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는 두음법칙을 반영하지 않은 표기를 하였다. 다음 예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신학신설》: 록식(綠色) cf. 녹식(綠色), 잇치(理致), 유리(琉璃)창, 냉풍(冷風), 여인이, 육왈(六曰)

《훈몽자락》: 령리헐 령(伶), 록봉 봉(俸), 리헐 리(利), 란간 란(欄), 로나라 로(魯), 류리 류(琉), 리질 리(糲), 류황 류(硫), 록두 록(菽), 퇴물 로(賂), 록디 록(陸), 리어 리(鯉), 려어 려(鱧), 로어 로(鱸), 룡 룡(龍) cf. 유리 리(璃)

<국문론>: 록문관

《아학편》: 녀승 니(尼), 류황 류(硫), 란초 란(蘭), 량식 량(糧), 록봉 록(祿), 리치 리(理) cf. 넘녀할 려(慮)

《자전석요》: 녀승 니(尼), 류황 류(疏), 란초 란(蘭), 량식 량(糧), 록봉 록(祿), 리
치 리(理), 류리 류(琉), 리별할 리(離) cf. 녀너할 려(慮)

《언문》: 류리 류(琉), 록디 록(陸), 란초 란(蘭), 량식 량(糧), 령롱할 령(玲), 로나
라 로(魯), 록봉 록(祿) cf. 녀려할 려(慮)

(6) 어두 ‘ㄴ’ 앞에서의 ‘ㄴ’ 탈락과 관련된 표기

어두위치의 ‘ㄴ’ 나 반모음 ㄹ 앞에서 ‘ㄴ’ 이 탈락한 것은 구개음화의 일화이다. ‘ㄴ’ 이 구개음화를 입으면 약화되는 셈이 되어서 결국은 탈락하게까지 되는 것이다. 이 현상도 18세기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쯤이면 완료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석영의 업적들에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ㄴ’ 탈락형과 ‘ㄴ’ 유지형이 공존하고 있다. ‘ㄴ’ 유지형은 역사적 표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신학신설》

‘ㄴ’탈락형: 옛사람, 일으되, 일으논이, 옛말, 일어나서, 이불, 익어서, 익의여 (이기어), 익키며, 임몸(잇몸), 이[齒], 입어서

‘ㄴ’유지형: 없음

《훈몽자략》

‘ㄴ’탈락형: 여름 하(夏), 일글 독(讀), 이 치(齒), 이 아(牙), 이마 덩(頂), 이마 전(顛), 이몸 은(顛), 이 안마줄 어(語)

‘ㄴ’유지형: 니를 격(格), 니 슬(蝨)

<국문론>

‘ㄴ’탈락형: 읽어

‘ㄴ’유지형: 닐으기를, 닐계, 닐으되

《아학편》

‘ㄴ’탈락형: 이불 금(衾), 읽을 독(讀), 이길 승(勝), 이마 액(額), 옛홀 천(淺), 일곱 칠(七)

‘ㄴ’유지형: 네 고(古), 리웃 린(隣), 닉힐 습(習), 닉사귀 엽(葉), 니 치(齒), 너름 하(夏).

《자전석요》

‘ㄴ’탈락형: 예 고(古), 익을 숙(熟), 이길 승(勝), 일을 운(云), 옛홀 천(淺)

‘ㄴ’유지형: 니블 금(衾), 니를 도(到), 닉을 독(讀), 니을 사(嗣), 니매 액(額), 닐을 위(謂), 니 치(齒), 닐곱 칠(七), 너름 하(夏).

《언문》

‘ㄴ’탈락형: 예 고(古), 익을 숙(熟), 이길 승(勝), 얕을 천(淺), 일곱 칠(七), 여름 하(夏)

‘ㄴ’유지형: 니을 계(繼), 니블 금(飧), 니러날 기(起), 니를 도(到), 님을 독(讀), 니즐망(忘), 님사귀 엽(集), 님늘 위(謂), 니마 익(額), 니를 지(至), 니 치(齒), 녀름하날 호(昊)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학신설》에서는 ‘ㄴ’ 유지형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점차 ‘ㄴ’ 유지형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옛 한글 문헌들을 보게 되면서 의고적인 표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현실음 위주의 표기로 나아갔으면서 어두 위치에서의 ‘ㄴ’ 탈락과 관련해서는 왜 오히려 의고적인 표기로 돌아가려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이 어두 위치에서의 ‘ㄴ’ 탈락과 관련된 표기는 앞서의 두음법칙과 관련된 표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

2. 문법의식과 관련된 표기

(1) 분철, 중철, 연철 표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 얼마 동안은 분철 표기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 분철표기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18세기가 되면 분철표기가 상당한 정도로 일반화된다. 한편 연철표기가 분철표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철표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⁵²⁾ 19세기는 분철표기가 우세한 가운데 이 세 가지 표기법이 혼재하는 혼란한 상태였다.

지석영은 연철, 분철 표기와 관련하여 〈자전석요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52) 연철표기에서 분철표기로의 이행과정 및 중철표기의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익섭(1992: 203-305) 참조.

을字爲讀漢字時 音義引接之詞 而 喫먹을씩 抱안을포 受받을수 黑검을흑 袂잡을집 紅붉을홍 烹삶을팽 廣넓을광 之類 爲引接之正則也 折씩글절 坐안글좌 無업글무 有잇글유 報값글보 從조출중 迎마글영 脫벗글탈 等字 如從正則 當作折씩글절 坐안글좌 無업글무 有잇글유 報값글보 從좃글중 迎맞글영 脫벗글탈 而넓글광 붉글홍 삶글팽 之類 行之已久 人皆曉之 坐報等字譯之而앉을 값을 則人必驚異 故今姑從俗 ‘을’자는 漢字를 읽을 때 音과 義를 이어주는 어사이니 ‘喫먹을씩 抱안을포 受받을수 黑검을흑 袂잡을집 紅붉을홍 烹삶을팽 廣넓을광’과 같은 예들이 인접의 정칙이다. ‘折씩글절 坐안글좌 無업글무 有잇글유 報값글보 從조출중 迎마글영 脫벗글탈’ 등의 경우도 정칙을 따라서 당연히 ‘折씩글절 坐안글좌 無업글무 有잇글유 報값글보 從좃글중 迎맞글영 脫벗글탈’과 같이 적어야 할 것이나 ‘넓글광 붉글홍 삶글팽’과 같은 예들은 행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지만 ‘坐報’ 등을 ‘앉을 값을’로 옮기면 사람들이 반드시 경이롭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 습속을 따른다.]

위의 내용은 ‘ㄱ ㄴ ㄷ ㅁ ㅂ’ 등의 흘받침과⁵³⁾ ‘ㄹㄱ, ㄹㅁ, ㄹㅂ’과 같은 겹받침에 대해서는 분철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받침들에 대해서는 습속을 따르는 표기, 즉 연철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지석영은 대체로 너무 혁신적인 것은,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지석영의 업적들에서 분철표기, 연철표기, 중철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로 하자. 먼저 《신학신설》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분철표기>

용언: 익어서, 안어서(않어서),갈어서, 만들어서, 베풀어서, 담아서, 입어서
 체언: 속에, 안에서, 불은, 불을, 이불이, 식탈이, 사람이, 집을, 병을, 일광을,
 쓰임을, 잇슴으로

53) ‘ㄹ’이 없는데, ‘ㄹ’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분철하는 받침 목록에 ‘ㄷ’이 들어 있으나 실제로는 ‘ㄷ’은 받침으로 쓰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受’의 훈을 ‘받을’로 표기하였으나 실제에서는 ‘받을’로 표기하였다. 受 받을 수, 즉 받침 ‘ㄷ’을 ‘ㅅ’으로 표기하되 분철하였다. 信 믿을 신, 直 곳을 직, ‘ㅅ’ 받침은 연철하였다. 拭 우슬 소, 脫 벗을 탈.

<연철표기>

용언: 다더(달-), 미드나(밈-), 어들(업-), 아러(알-), 거러(걸-), 씨서(씻-),
 씨스면(씻-), 씨슬(씻-), 마즈면(맞-), 자즈며(жат-), 너어(녕-), 너으면
 (녕-), 안즐(앗-), 씨언즈라(씨엌-), 만어서(땅-), 만으면(땅-), 불근(불-),
 굴머서(굴-), 열머서(열-), 쓸을(쓸-), 업서(업-)

체언: 마리(말, 馬), 마리라(말, 言), 열고리(얼골), 고세(곶), 거슨(것), 오슬
 (옷), 이거시(이것), 쉬우미(쉬움)

<중철표기>

체언: 것시라(것이라), 것슨(것은), 곶슨(곶은), 옷슬(옷을), 옷슨(옷은)

위의 예들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어간말음이 ‘ㄱ, ㄴ, ㄹ, ㅂ, ㅇ’ 일 경우에는 분철표기를 하고 ‘ㄷ, ㅅ, ㅈ’ 이나 ‘ㄹㄱ, ㄹㄹ, ㄹㅂ, ㅃ’ 등과 같은 자음군일 경우에는 연철표기를 했다. 어간말음이 ‘ㅎ’ 일 경우에는 연철표기를 했으나, 이런 환경에서 ‘ㅎ’ 은 탈락하여 표기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간말음이 ‘ㄹ’ 일 때에는 분철표기를 하기도 하고 연철표기를 하기도 했다.

중철표기는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간말음이 ‘ㅅ’ 일 때에 중철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간말음이 ‘ㅅ’ 이면 연철표기를 하기도 했다. 중철표기와 연철표기의 빈도를 보면 연철표기 쪽이 훨씬 우세한 편이다.

어간말음이 ‘ㄷ, ㅌ, ㅍ’ 등의 유기음일 때에는 분철표기도 아니고 연철표기도 아닌 일종의 재음소화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국문론〉의 경우에는 분량이 얼마되지 않아 표기법을 자세히 논의하기가 어렵다.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국문론〉에서는 어간말음이 ‘ㄹ’ 일 때에도 모두 분철표기를 했다(말을, 들으쇼서). 어간말음이 ‘ㄹㄱ’ 일 때에 분철표기를 했다(읽어). 어간말음이 ‘ㅅ’ 일 때에는 연철표기를 하기도 하고 중철표기를 하기도 했다. 거시(것이), 거슨(것은)/ 뜻시(뜻이), 뜻슬(뜻을).

《훈몽자락》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자자서이기 때문에 체언의 곡용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체언의 경우는 살펴볼 수가

없다.

<분철표기>

먹을, 적을, 남을, 다듬을, 잡을, 씹을

cf. 주근어미(죽-), 마글(막-), 거불(검-), 바루자불(잡-)

<연철표기>

아늘(안-), 신시를⁵⁴⁾ 섭(蹠, 신-)

바들(반-), 무들(문-), 우슬(웃-), 나즐(낫-), 이즐(잇-), 너홀(녕-)

안즐(앗-), 불글(붐-), 결물(젊-), 발불(뺨-), 홀뜰(훑-), 을꿀(을-), 올홀(옳-), 업슬(업-)

cf. 굿을(굳-)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훈몽자락》에서는 어간말음이 ‘ㄱ, ㅋ, ㆁ’ 이면 대체로 분철을 했는데, 연철을 한 경우도 더러 있으며 어간말음이 ‘ㄷ, ㅌ, ㅈ, ㅊ’ 이거나 자음군이면 거의 예외없이 연철을 하였다. 어간말음이 ‘ㄴ’ 인 경우에는 예가 적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나타난 예(2개)만 보면 연철을 하였다. 어간말음이 ‘ㄹ’ 인 경우는 연철, 분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예가 나타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복합어상에서는 대개 연철을 하였다. 도를 회(回, 돌-), 어러터질 굳(軋, 얼-). 어간말음이 유기음이나 경음인 경우에는 뒤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아학편》의 경우를 보자

<분철표기>

죽을, 안을(抱), 싸불을, 씹을, 굽을, 웃을(웃-), 벗을(벗-), 씻을(씻-)

밝을, 붐을, 삶을, 젊을, 뺨을, 넓을

cf. 밋을(밋-), 엇을(업-), 닷을(단-), 밧을(반-)

<연철표기>

나즌(낫-), 느즐(늑-), 차즐(찰-), 조출(죇-), 안즐(앗-), 업슬(업-)

싸을(쌩-), 조을(죇-), 끈을(꺄-), 만을(망-), 올을(옳-), 일을(일-)

54) ‘시를’은 ‘시닐’의 ‘ㄴ’을 ‘ㄹ’로 표기한 것일 것이다. 이 시기에 드물지 않게 보이는 현상이다.

<중철표기>: 없음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학편》에 오면 표기법이 상당히 정비가 된다. 어간말음이 ‘ㄱ, ㄴ, ㄹ, ㅁ, ㅂ, ㅅ’ 이면 거의 예외없이 분철표기를 한다. 어간말음이 ‘ㅅ’ 일 때에도 분철표기를 한 것이 특이하다.⁵⁵⁾ 자료의 성격상 용언 활용의 경우만 볼 수 있으나 체언의 곡용에서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간말음이 ‘ㅇ’ 인 경우를 확인할 수 없으나 곡용상에서 ‘ㅇ’ 이 어간말음일 경우 분철표기를 한 것은 역사가 오래므로 ‘ㅇ’ 일 경우에도 분철표기를 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로써 본다면 전통적인 8중성 중 ‘ㄷ’ 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 어간말음일 때에는 분철표기 하는 것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어간말음이 ‘ㄹ, ㄹ, ㄹ’ 과 같이 ‘ㄹ’ 로 시작되는 자음군 일 때에도 역시 분철표기를 하고 있다. 어간말음이 ‘ㄷ’ 일 때에는 분철표기를 하기는 하는데 받침을 ‘ㅅ’ 으로 표기하고 있다.⁵⁶⁾ 8중성에서 7중성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표기법이다.

어간말음이 ‘ㅅ, ㅅ’ 이거나 ‘ㄴ, ㅁ’ 과 같은 자음군일 때에는 연철표기를 했다. 어간말음이 ‘ㅎ, ㄴ, ㄹ’ 일 때에는 모음어미 앞에서 ‘ㅎ’ 이 탈락하여 표기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연철표기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ㄴ, ㄹ’ 일 때 ‘ㅎ’ 이 탈락한 후, 남은 ‘ㄴ, ㄹ’ 이 연철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다. 어간말음이 유기음이나 경음인 경우는 뒤에서 논의하겠다. 여기서도 중철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에는 《자전석요》의 경우를 보자. 《자전석요》의 표기법도 《아학편》의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어간말음이 ‘ㅅ’ 일 때는 연철표기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썩어술(썩엇-), 우술(웃-), 버술(벗-), 씨술(씻-). 그러니까 《아학편》에서는 어간말음이 ‘ㅅ’ 인 경우와 ‘ㄷ’ 인 경우가 표기상으로 구별되지 않았는데, 《자전석요》에서는 구별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예씩만 보이면 다음과

55) ‘썩어술(썩엇-)’ 과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다.

56) 여기에도 ‘바들(받-)’ 과 같은 예외가 있다.

같다고 할 수 있다.

믿-(信): 믿고, 믿지, 믿어, 믿어서, 믿음, 믿으니

웃-(笑): 웃고, 웃지, 우서, 우서서, 우של, 우스니

그밖에 《자전석요》에서는 체언의 곡용 예들도 더러 볼 수가 있는데,

손사가락으로. 눈에. 여럿이. 흙으로

용언 활용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듯하다. 다만, 어간말음이 ‘ㅅ’ 일 때에 분철표기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체언의 경우에는 말음이 ‘ㄷ’ 인 예가 없어서 어간말음이 ‘ㅅ’ 일 때 분철표기를 하여도 혼동될 염려는 없다.

(2) 유기음 재음소화 표기

유기음의 재음소화 표기는 유기음이 평음과 ‘ㅎ’ 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인식과 분철표기의 영향으로 나타난 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철표기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어간말 유기음들이었을 것이다. 8종성법 혹은 7종성법의 표기법에서는 이런 유기음들을 분철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재음소화하여 평음은 선행음절의 종성으로, ‘ㅎ’ 은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깊-(深) + -은’ 이 15세기의 연철표기에서는 ‘기픈’ 로 표기되었었는데, 이것이 분철표기 시대에 오면 ‘김흔’ 과 같이 표기되었던 것이다. 이는 ‘표’ 을 ‘ㅂ’ 과 ‘ㅎ’ 으로 재음소화하여 ‘ㅂ’ 은 앞음절의 종성으로, ‘ㅎ’ 은 뒤음절의 초성으로 표기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표기로서 중철표기와 유사한 ‘김픈’ 과 같은 표기도 나타났던 것이다.

- 불휘 기픈 남근(根深之木, 龍飛御天歌 2장)
깊픈 모슬(深池, 御製內訓 2:107a)
깊흔 못 가운데(深池中, 增修無冤錄諺解 3:5b)

그밖의 유기음 ‘츠, 크, 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홍운표(1994:260)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츠:	비체	빗체	빗헤	(빗)
	조차	좇차	*	(좇-)
크:	너크로	넉크로	넉흐로	(넉)
티:	꺄트니	꺄트니	꺄흐니	(꺄-)
	겨티	것티	것희	(겉)

19세기 말의 상황은 재음소화 표기가 우세하기는 하였으나 이 세 가지 표기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그러면 지식영의 실제 표기를 살펴 보도록 하자.

《신학신설》: 좇차서(좇아서)

밋테(밋에), 슷트로(술으로), 슷틀(술을), 맏트면(맏으면), 갓튼(같은), 갓터서(같이서), 훗터(홀어), 훗터서(홀어서)
 입히(입이), 덩허서(덩어서), 덩푸라(덩으라), 높흔(높은)

<국문론>: 꺄흐니(같이니), 꺄흐며(같이며)

엍헤(엍에), 높흔(높은)

《훈몽자략》: 좇츨(좇을, 從), 좇츨(좇을, 遵) cf. 꺄츨(꺄츨을, 追)

맏츨(맏을, 任), 갓츨(갓을, 似) cf. 가츨(가을, 類)

갑츨(갑을, 價), 깊츨(깊을, 深), 높츨(높을, 高)

cf. 홀츨(홀-, 을풀(을-),

《아학편》: 조츨(좇을, 從)

맏츨(맏을, 嗅), 갓츨(갓을, 同), 엇츨(엇을, 淺)

높츨(높을, 高), 갑츨(갑을, 報)

읍츨(읍을, 詠)

《자전석요》: 조츨(좇을, 從), 조츨(좇을, 率), 쫘츨(쫘을, 遂)

맏츨(맏을, 任), 갓츨(갓을, 似), 갓츨(갓을, 如), 벳헤(벳에)

갑츨(갑을, 報), 높츨(높을, 高), 압헤(앞에)

읍훤(읍을, 詠), 읍훤(읍을 吟)

《언문》: 조출(좃을, 從), 쏘출(좃을, 遂)

갓훤(갓을, 如), 엇훤(엇을, 淺)

놉훤(놉을, 高), 감훤(감을, 報)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기음의 경우, 지석영은 초기에는 재음소화 중철표기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ㄷ’의 경우는 연철표기를, ‘ㅌ, ㅍ’의 경우는 재음소화 분철표기를 하고 있다. ‘ㄹ표’의 ‘ㅍ’도 마찬가지다. 《훈몽자략》에서는 ‘을꿀’로 표기했던 것을 《아학편》에서는 ‘훤’로 표기하고 있다. 유기음 표기도 뒤로 올수록 일관성을 가지는데, 이것도 《아학편》에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ㅋ’ 발음 어간은 발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3) 어간말 경음 표기

어간말 경음으로는 ‘ㄱ’과 ‘ㅍ’이 있다. 이들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훈몽자략》과 《자전석요》만 살펴 보기로 한다.

《훈몽자략》: 닷글(닷을, 修), 짝글(짜을, 削), 묵글(뭉을, 束)

닛슬(잇을, 行), 잇슬(잇을, 在)

《자전석요》: 짝글(짜을, 削), 짝글(짜을, 剝), 꺾글(꺾을, 折) cf. 뭇글(뭉을, 束)

잇슬(잇을, 有), 잇슬(잇을, 在)

약간의 예외가 없지 않으나 어간말 ‘ㄱ’은 《훈몽자략》에서부터 선행음절의 종성과 후행음절의 초성으로(ㄱ\$ㄱ)⁵⁷⁾ 나뉘어 표기되는 것이 정착되는 듯하다. 그런데 ‘ㄱ’은 ‘ㄷ’으로부터 발달한 것이어서 ‘ㅌ\$ㄱ’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간말 ‘ㅍ’은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ㅌ\$ㅍ’으로 분리되어 표기된다. 《훈몽자략》에서는 어간말음이 ‘ㅌ’으로 여겨지

57) ‘\$’은 음절경계 표시이다.

는 표기도 보인다(니슬).

(4)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하여 지식영은 《아학편》의 앞쪽에 범례처럼 실은 〈대한국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이시옷을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사이에 표기하기를 제안하였다.

新訂名詞聯音辨

배꽃 맺들 等 名은 ㅅ字를 中間에 置하여 上下의 名詞로 하여곰 障礙됨이 업시 聯讀하면 其音義가 了然하니 배ㅅ꽃 매ㅅ돌 之類

그러면 실제 표기에서는 어떠했는가? 《신학신설》과 〈국문론〉에서는 예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 《훈몽자략》의 경우부터 보기로 하자.

《훈몽자략》: 머리골(腦), 심ㅅ가르(筋), 고기쭈(骨 月+立), 큰발까락(胲), 반딧불(螢), 바리썩(鉢)

cf.1 쇳돌(礦), 뭇비둘기(鴉)

cf.2 물결(波), 큰발가락(胲), 이몸(斷)

《아학편》: 머리ㅅ골(腦), 손ㅅ가락(指), 싸ㅅ골(髓), 물ㅅ결(波)

《자전석요》: 잠ㅅ간(乍), 고ㅅ집(倉), 섬ㅅ돌(階), 고기ㅅ점(藏), 쇳ㅅ돌(礦), 머리ㅅ골(腦), 큰발ㅅ가락(胲), 물ㅅ결(波), 니ㅅ몸(斷)

cf. 반딧불(螢)

《언문》: 즈럼ㅅ길(徑), 쇳ㅅ돌(礦), 들ㅅ보(樑), 섬ㅅ돌(階)

cf. 집ㅅ대마루(棟), 다복ㅅ썩(蓬)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이시옷 표기는 《훈몽자략》까지는 일관성이 없다. 대체로 후행요소의 초성으로 표기해 주지만 선행요소의 종성으로 표기해 주기도 하고 사이시옷이 들어갈 자리라고 여겨지는데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아학편》에 오면 그 범례에서 규정한 대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사이에 사이시

옷을 일관되게 표기해 준다. 따라서 사이시옷 표기도 《아학편》에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학편》 이후의 문헌들에서도 사이시옷 표기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 다만 《언문》에서 ‘집스대마루(棟), 다복스쑥(蓬)’과 같이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쓴 경우가 더러 있다.

3. 종성 ‘ㄷ, ㅅ’ 표기 문제

종성 ‘ㄷ, ㅅ’ 표기 문제는 음절말위치에서 ‘ㄷ’ 과 ‘ㅅ’ 이 중화되는 음운변화와 체언어간말의 ‘ㄷ’ 이 ‘ㅅ’ 으로 재구조화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재미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종성 ‘ㄷ’ 과 ‘ㅅ’ 이 중화되던 초기에는 원래의 ‘ㅅ’ 이 음운변화의 영향을 받아 ‘ㄷ’ 으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래의 ‘ㄷ’ 이 모두 ‘ㅅ’ 으로 표기되게 된다. 그리하여 ‘ㄷ’ 이 종성으로 쓰이지 않게 되어 8종성이 7종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간말음이 ‘ㄷ’ 인 경우와 ‘ㅅ’ 인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여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두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별 표기되었다.

‘ㄷ’말음어간 : 밋고 밋지 / 밋어 밋으니

‘ㅅ’말음어간 : 썼고 썼지 / 써서 써스니

즉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다 같이 종성을 ‘ㅅ’ 으로 표기하되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ㄷ’ 말음 어간의 경우는 종성을 ‘ㅅ’ 으로 표기하되 분철을 하고 ‘ㅅ’ 말음어간의 경우에는 연철을 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이러했으나 이와 같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⁵⁸⁾ 그러면 지석영은 ‘ㄷ’ 말음어간과 ‘ㅅ’ 말음어간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지석영은 대체로 7종성법에 따른 표기를 하였으므로 ‘ㄷ’ 말음어간

5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이익섭(1992: 306-353) 참조.

이나 ‘ㅅ’ 발음어간이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늘 종성을 ‘ㅅ’ 으로 표기하였다. 문제는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인데 다음에서 그 양상을 보기로 하자.

대체로 초기에는 ‘ㄷ’ 발음어간이나 ‘ㅅ’ 발음어간 모두 연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훈몽자략》: 미들(믿-, 信), 바들(받-, 受), 어들(얻-, 得)

우슬(웃-, 笑), 씨슬(씻-, 洗)

《아학편》: 곳울(굳-, 固), 엇울(얻-, 得), 못울(문-, 埋), 밋울(믿-, 信)

웃울(웃-, 笑), 벗울(벗-, 脫) cf. 췌아슬(췌앗-, 奪)

《자전석요》: 밋울(믿-, 信), 엇울(얻-, 得), 곳울(굳-, 固), 못울(문-, 埋)

우슬(웃-, 笑), 버슬(벗-, 脫), 씨슬(씻-, 洗), 췌아슬(췌앗-, 奪)

《언문》: 상동

위에서 재미있는 것은 《훈몽자략》에서는 모두 연결을 하다가 《아학편》에서는 모두 분철을 하더니 《자전석요》에 와서야 ‘ㄷ’ 발음어간의 경우는 종성을 ‘ㅅ’ 으로 표기하되 분철을 하고 ‘ㅅ’ 발음어간의 경우에는 연결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전석요》에 와서야 나름대로의 표기법이 정립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4. 불규칙 활용 표기

지석영은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듯하다. 게다가 그는 실용적인 표기법, 간편한 표기법을 지향했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의 경우 발음 나는 대로 표기했다. 즉 불규칙 활용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했다. 몇 예씩만 보기로 한다.

《신학신설》: 췌다리(췌담-)

더운(뎡-), 히로운(히롭-), 어둔(어뎡-)

나운(낫-)

일너스되(이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4) 종성은 ‘ㄱ, ㄴ, ㄷ, ㅁ, ㅂ, ㅅ, ㅇ’ 7개로 국한한다.
- (5) 어두 경음(된소리)은 ‘ㅅ, ㅆ, ㅈ, ㅊ, ㅌ’으로 표기한다.
- (6) ‘다더도튜디, 타터튜튜티’로 적어왔던 것은 ‘자저조주지 차처초추치’로 적는다.
- (7) ‘샤셔쇼슈 자저조주 차처초추’로 적어왔던 것은 ‘사서소수 자저조주 차처초추’로 적는다.
- (8) 음절초성을 가지는 경우라도 ‘-니(의)’로 발음되는 것은 ‘-니’로 적는다.
 고유어: 괴다(傀), 함의(俱), 이기다(勝), 띄글(塵), 뿔희(根), 희다(白), 모기(蚊), 바되(箒), 대마되(節), 거미(蛛), 호피(鎗)
 한자음: 식(嫵), 기(基, 氣, 期, 記, 器, 己, 汽, 旗, 飢, 등), 희(喜, 希, 熙 등)
- (9) 말이 ‘ㄱ, ㄴ, ㄷ, ㅁ, ㅂ, ㅇ’이거나 ‘ㄹ, ㄺ, ㄻ’인 어간이 모음조사나 모음어미(매개모음어미 포함)와 결합할 때는 어간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분철표기)한다
 쑥: 쑥이, 쑥을 밥: 밥이, 밥을 흙: 흙이, 흙을
 먹-: 먹어, 먹으니 잡-: 잡아, 잡으니 맑-: 맑아, 맑으니
 읊-: 읊아, 읊으니 밟-: 밟아, 밟으니
- (10) 어간말음이 ‘ㅈ, ㅊ, ㅌ, ㅍ’인 경우에는 연철표기한다.
 찾-: 차저, 차즈니 좇-: 조차, 조즈니
 앉-: 안저, 안즈니 없-: 업서, 업스니
- (11) 어간말음이 ‘ㅅ’인 경우, 용언활용에서는 연철표기를 하고, 체언곡용에서는 분철표기를 한다.
 웃-: 웃고, 웃지, 웃서, 웃스니
 옷: 옷과, 옷이, 옷을
- (12) 어간말음이 ‘ㄷ’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얻-(得): 엇고, 엇지, 엇어, 엇으니
 받-(受): 밧고, 밧지, 밧아, 밧으니
- (13) 어간말음이 ‘ㄱ, ㅌ, ㅍ, ㅍ’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녁: 녁과, 녁도, 녁히, 녁흠, 녁흐로
 맡-: 맞고, 맞지, 맞하, 맞흐니
 눅-: 눅고, 눅지, 눅하, 눅흐니
 읊-: 읊고, 읊지, 읊히, 읊흐니
- (14) 어간말음이 ‘ㄴ, ㄹ’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많-: 만타, 만코, 만아, 만으니
 읊-: 읊타, 읊코, 읊아, 읊으니
- (15) 어간말 경음인 ‘ㄱ’과 ‘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썩-: 썩고, 썩지, 썩거, 썩그니

- 있-: 잇고, 잇지, 잇서, 잇스니
 (16) 불규칙활용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듣-: 듣고, 듣지, 드러, 드러니
 돕-: 돕고, 돕지, 도와, 도으니
 짓-: 짓고, 짓지, 지어, 지으니
 날-: 날고, 나지, 나는, 나니
 흐르-: 흐르고, 흐르지, 흘러
 이르-(到): 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하-: 하고, 하지, 하여, 하니
 (17) 사이시옷은 선행어와 후행어의 사이에 독립하여 표기한다.
 머리스골(腦), 손스가락(指), 뼈스골(髓), 물스결(波), 섬스돌(階)
 잠스간(乍), 고스집(倉), 고기스점(藏)
 (18) 한자어를 국문으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은 적용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한자
 는 어떤 위치에 나타나든 동일한 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女醫 너승(○) 여승(×)
 蘭草 란초(○) 난초(×)
 良心 량심(○) 양심(×)

VI. 마무리

지석영은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약관의 나이 무렵에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종두법을 익혀서 한국에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던 천연두를 퇴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서양의학의 공부를 하여 이 땅에 서양의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의학교 교장의 직을 맡아 현대식 의사를 길러냄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그가 조선의 은인으로 추앙받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그는 강위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리고 당시의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국어국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어국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 국문의 정리와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지석영은 국어와 국문을 교육의 도구로 생각하는 어문관, 표기법

은 쉽고 편해야 한다는 간편주의(또는 실용주의) 언어관을 가지고 있었다. 쉽고 편해야 한다는 것은 민중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爲民主義 언어관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표기법의 기본정신을 '便民利國'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민중에게 어렵거나 생소한 표기법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석영이 주시경의 표기법에 반대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석영은 국어국문이, 특히 국문이 '轉轉詛誤'하게 된 것은 學問家들이 국문을 연구하지 않고 서툰 민간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 혼란된 어문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문론〉을 발표하여 국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당시의 국문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동음이의어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점법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국문이 미진하다는 漢文家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신정국문〉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국문과 관련해서 논란이 분분했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개화기 이후 최초의 국문 표기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는 그리 타당한 표기법안은 아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다시 말해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지도 못한 일반 민중들에게 국문을 빨리 보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면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포했던 것은 〈신정국문〉의 그러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전석요》는 한자의 음과 뜻을 한글로 하면서 현실 한자음을 제시한 최초의 자전이였다.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한 자전으로 《國漢文新玉篇》이 1년 먼저 간행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뜻풀이가 단순하다든가 현실 한자음을 제시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점에서 《자전석요》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자전석요》는 현대 한국 한자음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큰 업적이다. 그랬기에 사람들로 부터 가장 사랑 받은 자전이 되었을 것이다.⁶⁰⁾

《언문》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한자어를 모아 제시해 주고(상편) 다시 거기에 쓰인 한자들을 음별로 분류하여 훈과 함께 제시해 준 것으로서 한자어 어휘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당시로서는 물론 국민들의 어문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책의 광고문에서는 ‘蒙昧를 啓導하는 光線’이라고 하였다.

지석영은 위와 같은 업적을 낸 이외에 국문학교 설립을 학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經史諸書와 실무 관련 책들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국문으로 번역하여 刊布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가진이 사립 국문학교를 설립하려 하자 교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국문연구회를 조직하여 국문연구를 활성화시키려 하기도 하였다. <대한국문>이라는 한 장짜리 국문교재를 간행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스스로 국문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에 지석영만큼 어문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친 사람도 드물 것이다. 또 국문보급에 지석영만큼 기여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쉽고 간편한 표기법을 추구했던 지석영의 표기법은 당시로서는 실용적인 표기법이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표기법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표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혼란된 표기법을 정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의 정비된 표기법은 《사전석요》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주시경의 이론 지향적 표기법이 학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민중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당시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주시경의 표기법에 반대하였다. 주시경의 표기법이 형태음소적 분철표기법이요, 이론적 표기법이라면 지석영의 표기법은 음소적 분철표기법이요, 당시로서는 실용적인 표기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0) 하강진(2010: 691)에 따르면 《字典釋要》는 초판 포함 21회나 간행되었다고 한다. 1910년대에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이었다고 한다.

지석영의 어문 관련 업적

- 1891: 신학신설
1896: 국문론
1901: 訓蒙宇略
1905: 新訂國文請議疏
1905: 新訂國文, 관보 3200호, 황성신문 1905.7.28. 別報
1907: 大韓國文說, 대한자강회 월보 11, 13호
1909: 國文研究案
1908: 주석 兒學編
1909: 言文
1909: 字典釋要
1929: 理論としては結構 實行されては困る, 總督府の 朝鮮文綴字法改正案を見て(五, 六, 七), 《朝鮮思想通信》 1929년 7월 8, 9, 10 일(3회 연재)

참고문헌

-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대구:우골담.
기창덕(1994), 池錫永 先生の 生涯, 《松村 池錫永》(대한의사학회 편), 아카데미아.
김민수(1963), 新訂國文에 관한 연구: 特히 '이오' 습합과 아래아를 問題로 하여, 《아세아연구》 5권1호(통권 1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5-247.
김민수(1987), 《國語學史의 基本理解》, 집문당.
김성진(1973), 지석영(池錫永), 《韓國人物大系 6》(近代의 人物 1), 박우사, 275-284.
김영진(1999), 池錫永의 國文研究와 普及, 《어문논총》 14, 동서어문학회, 51-69.

- 대한의사학회 편(1994), 《松村 池錫永》, 아카데미아.
- 동아일보 1963.9.23, 5면 〈우리나라 책의 발자취 ⑥자전석요〉
- 문화체육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3), 《7월의 문화인물 지석영》.
- 박병채(1980), 《言文》에 관한 研究: 聲調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60.
- 박호현(1991), 지석영의 국어학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韓國文化》 3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36.[이병근 외(2005)에 재수록].
- 송철의(2008), 반절표의 변천과 전통시대 한글 교육, 《세계 속의 한글》(홍종선 외), 도서출판 박이정, 165-194.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용하(1985), 池錫永全集 解題, 《池錫永全集 1, 2, 3》(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 신용하(2004), 池錫永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한국학보》 30권 2호 (통권 115호), 89-112.
- 신유식(1988), 近代國語書記法研究,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식(1993), 池錫永의 國文研究, 《語文論叢》 89, 청주대학교.
- 신유식(1999), 지석영과 주시경의 비교연구: 서기법이론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14, 동서어문학회(청주대학), 71-95.
- 여찬영(2003), 지석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연구, 《어문학》 79, 한국어문학회, 193-212.
- 유동준(1997), 《兪吉濬傳》(重版, 초판 1987), 일조각.
- 이관일(1994), 松村 池錫永과 國文研究, 《松村 池錫永》(대한의사학회 편), 아카데미아.
- 이광린(1993), 송촌 지석영, 《개화기의 인물》,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70), 《開化期의 國文研究》, 일조각.
- 이기문(1977), 19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朴晟義博士回甲紀念論叢》, 169-178.
- 이병근(1986),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 問題, 《국어생활》 4호, 국어연구소, 24-45.
- 이병근(1998), 統監府 時期의 語彙整理와 그 展開 : 池錫永의 《言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24.

- 이병근 외(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완응(1928), 朝鮮のペン種痘先生 (一)-(九), 《朝鮮思想通信》 1928. 11. 19-28.
- 이익섭(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준환(2012), 자전석요(字典釋要)의 체제상의 특징과 언어적 특징,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연구회, 113-144.
- 이충구(1991), 한국자전성립의 考, 《반교어문연구》 3, 반교어문연구회, 9-27.
- 이충구(1994), 池錫永의 漢字整理, 《松村 池錫永》(대한의사학회 편), 아카데미아.
- 임형택(1999), 근대계몽기 국한문체(國漢文體)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민족문학연구》 14호, 8-41.
- 전일주(2006), 강희자전과 한국초기 자전 비교연구: 《자전석요》와 《신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2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357-386.
- 주승택(1991), 姜瑋의 著述과 《古歡堂集》의 史料的 가치, 《奎章閣》 14, 서울대 규장각, 93-120.
- 지석영(1929), 理論としては結構 實行されては困ろ, 總督府の 朝鮮文綴 字法改正案を見て(五, 六, 七), 《朝鮮思想通信》 1929년 7월 8, 9, 10일 (3회 연재)
- 하강진(2010),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제변화, 《한국문학논총》 56집, 663-728.
- 한성우(2010),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지식: 지석영 편찬의 '兒學編'의 언어자료》, 인하대학교 출판부.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85), 《池錫永全集》(전3권), 아세아문화사.
- 허경진(1993), 평민문학이 개화에 끼친 영향: 육교시사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논문집》 23, 목원대학교, 63-102.
- 황상익(2008), 지석영, 《한국의학인물사》(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태학사.
- 홍연진(2008), 대한제국기 지석영의 활동과 그 성격, 《동아시아사의 인물과 라이벌》(조동원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아세아문화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三木榮(1935^ㄷ), 朝鮮種痘史, 별쇄본.

三木榮(1935^ㄴ), 朝鮮種痘史話(1-6), 《京城日報》, 1935. 7. 3, 4, 5,
6, 9, 11.(6회 연재)